



지면안내

동대신문 50년사 6~7면
대중언론창출의 한길을 걸어온 본사가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전상을 더듬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본다.

모집단위 광역화 8~9면
학생회 붕괴에 따른 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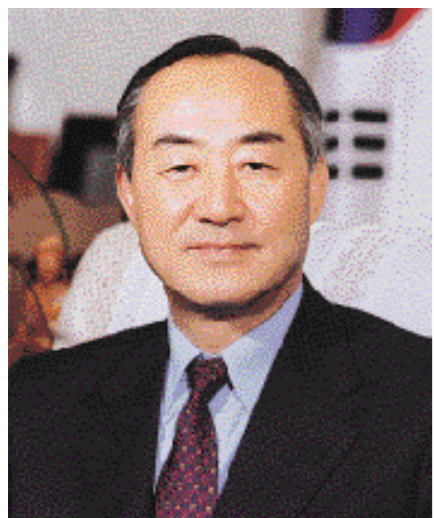
창간 50주년기념 대중매체선호도 및 동대신문 만족도 조사 3·12면

테마로 보는 문화면 10~11면
97년 개강호부터 시작된 '테마형식'을 진단해 보고 그동안의 문화면을 정리한다.

동대신문 창간50주년 기념사

근대사에서 선도적 입장 견지해온 '지성의 독려'

대학신문 위상 고민 ... 대학기능 대중화에 앞서는 것



송 석구 총장(철학·동대신문 발행인)

우리 동국대학교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동대신문이 오늘로 역사적인 창간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금자탑은 우리 대학의 영광일뿐 만 아니라 길지않은 우리나라 대학사에 비추어 볼 때 한 이정표이자 큰 자랑거리로서 그동안 동대신문을 아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4월15일, 조국해방과 독립을 거쳐 겨우 국가의 기쁨을 다져가는 근대사의 혼란기에 대학문화의 창달을 통해 대학발전은 물론이요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으로 동대신문은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창간된지 불과 두달 뒤 동대신문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으며, 이후 4.19학생의거와 5.16군사혁명, 6.3한일회담반대, 5.17광주민주화항쟁 등 우리 근대사의 굵직한 소용돌이 속에서 필화사

건과 더불어 순수한 열정의 학생기자들이 수모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

그렇지만 동대신문은 그때마다 언제나 선도적 입장에 있었고, 그 안에 동대신문의 변칙적인 '지성의 독려'가 있었음을 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 대학이 어떤 길을 걸어 왔고, 전통이 무엇이며,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한 대학안팎에서 분출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역사를, 학문을, 문화를 담아 온 투명하고 보배로운 동국가족의 큰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대신문을 비롯한 한국대학 신문들의 현주소는 아직도 학교 신문이나, 학생신문이냐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저널리즘이나, 아카데미즘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 위상과 역할을 자리 매김해 나갔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의 동대신문의 고민은 각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신문 제작을 담당하는 학생기자의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대신문의 질이 퇴보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신문이 물량면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면이 늘어났고 부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매회 컬러 지면으로 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나 보도형태에서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의 편집과 제작은 고도의 전문성

을 요구합니다. 저널리즘적 아이디어와 학문적 접근 방법을 조화있게 이끌어갈 전문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개혁하고 변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국제화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학교육은 대학의 대중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양산체제에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의 질에 앞선 이 양산체제가 대학의 학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면이 있기도 하지만 학문의 대중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우리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한차원 높여주고 있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학문과 정보의 대중화를 표방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라면 동대신문도 이와같은 대학기능의 대중화와 내실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국의 발전이 동대신문의 발전과 그 축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새삼 동대신문의 무게는 천근 만근이 됩니다. 동대신문은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입니다. 좁게 보면 지도교수와 학생기자 몇사람에 의해서만 들여지지만, 크게 보면 구성원 모두가 만드는 바로 동국 미래의 지렛대입니다. 이 점에서 다함께 동대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애정과 질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동대신문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주간등 임직원과 학생 기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대신문을 분신처럼 사랑해주시는 동국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간 50주년 기념사업

I. 황석영 선생 초청 강연회와 축하연회

- 1) 강연회 : 오늘(17일) 오후 4시 본관 중강당 '아들을 위하여 - N세대에게 고함'
- 2) 축하연 : 오늘(17일) 오후 6시30분 상록원 교직원식당

II. 동국 벤처 축제

오는 5월 8일부터 약 2주동안 재학생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벤처의지를 심어주기위해 본교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벤처축제를 엽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벤처특집호를 발간합니다.

- 1) 벤처 관련 특강
 - 정부의 벤처지원정책
 - 벤처기업가 정신
 - 벤처기업과 엔젤
 - 벤처기업과 코스닥
 - 벤처기업과 특허
 - 벤처와 대학교육
- 2) 벤처창업 경연대회
 - ① 벤처창업 경연대회 참가자격 : 본교에 재학하는 대학원생(석·박사)과 학부생
 - ② 모집과 심사
 - 모집기간 :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 심 사 : 1차 서류심사 후, 우수작에 한하여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발표회를 가짐
 - 발표와 시상 : 5월 19일(금)
 - ③ 시상 내용
 - 대상 1팀 - 300만원 창업지원금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회 부여)
 - 우수상 1팀 - 200만원 창업지원금 (창업지원센터 내 SOHO 입주기회 부여)
 - 가작 2팀 - 100만원 창업지원금

III. 방북취재 사업 추진

방북취재는 동대신문사에서 벌이는 '통일운동'입니다. 북한에 있는 대학을 방문해 북한 대학생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남북한 대학생들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IV. 동국인 의식조사

동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장래희망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애정관이 어떠한지... 등등 오는 2학기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입니다.

V. 학교사랑 캠페인

전 동국인의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속에서 실천하고자 총 6회에 걸쳐 학교사랑 캠페인을 벌입니다.

VI. 사진집 발간

'아름다운 동국을 책속에 담는다'
'VIEWFINDER DONGGUK'에 게재되고 있는 캠퍼스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경과 학생들의 역동적인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대전통을 선양할 수 있는 시들을 수록하여 사진들을 중심으로 한편의 책으로 발간합니다.

“젊음을 바친 동대신문”

창간 반세기,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한다

그때, 그때도 봄날이었지. 봄빛은 맑은 만큼 아프지. 아픔을 풀기 위해, 그 아픔 위에 태어났지. 시대의 어둠을 꺼내고 달려온 반세기. 그래서 잊을 수 없지, 우리 둘이서서 남몰래 흘린 눈물은 보석보다 영롱했지. 풀잎끝 이슬보다 맑았지.

반지하의 동대신문사에서 바라보던 저녁놀은 왜 그리도 처연했는지. 왜 그리 슬팠는지. 난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가던 신문사 동료들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들이 지니고 온 사랑, 우리 만큼이나 투박하고 정겨운 얼굴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그들과 다시 나라와 인생을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헤어지게 만들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간다. 그래도 그대로 있는건 동대신문뿐. 송혁 주간(교수)님은 이제 땅속에 계신다.

그분은 화로와 같았다. 많은 신문사 기자들이 그분의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며 컸다. 참으로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을 떠올리면 반지하 동대신문사로 스며들던 그 노을이 생각난다. 정말 생각할 수록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다. 그때 그 순간들이 신호호, 남상균, 장영미, 이원섭, 이철호, 한만수, 권복순, 권윤옥, 안동일, 권일열, 한주신, 문효근... 그림다. 모두가.

동대신문이 굳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기에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내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내 젊음을 바친 그래서 내 순수한 피가 묻어 있는 내 사람 동대신문, 당신의 반세기를 사랑합니다. 다시 순수한 젊음을 바치는 기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김택근(77년 편집부장, 현 경향신문 문화부장)

언론독립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담아내는 역할 필요

희망과 대동의 2000년에도 우리 동약 학우들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론 독립이 유명무실한 지금의 남한사회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자성이 대학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자리매김함이 진정한 언론 독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대 신문사가 언론 독립의 그 장엄한 길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연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 나무가 자라는 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등등. 잘 보

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러한 자연의 소리들을 잡아내고 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곳,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을 소홀히 하지 않는 동대 신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1만 2천 학우를 곁에서 1만 2천의 목소리가 되는 동대 신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승복(서울캠 총학생회장)

신뢰성있는 참된 언론으로 성장하길

항상 동국인의 눈과 귀로써의 역할로 최선을 다한 50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값진 시간을 귀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듯이 대학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언론의 중요성을 모두들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중심에 서서 객관적 시각을 지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는 이들이 더한 중요성과 신뢰감으로 언론을 접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던 언론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 동대신문사는 올바른 길을 반듯하게 걸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

다. 동대신문사의 50주년은 학생들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쁠때 같이 기뻐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기쁜 날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50주년, 100주년이 아닌 그 이상으로 장수하는 동대신문사가 되길 바라며 끊임없이 동국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발로 뛰는 신문, 모두에게 동대신문 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문이길 바랍니다.

항상 정당한과 따뜻한 가슴으로 동국을 위한 참된 언론으로서의 동대신문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성우(경주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동대신문은 동대인의 숨쉬는 발자취’

동대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마다 거듭되는 조판작업속에서도 항상 일만 삼천 동국인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담아내고 바른 방향을 찾아 고민하는 동대신문 기자들의 치열한 모습은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신문 50년’을 가능케 한 것은 확고하게 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기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값진 산물이라고 생

각합니다. ‘동대신문 50년’의 전통은 동국대학교 전체의 축복이며 반세기 1294호에 달하는 신문의 역사는 동국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발자취로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더 좋은 신문발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동국POST 편집장)

“학내의 ‘주인된 삶’을 만들어가자”

동대신문이 올해로 벌써 창간 반세기를 맞고 있다. 80년대 군부독재정권의 암흑시대를 거쳐 새천년을 맞는 지금까지 정론직필·참언론을 추구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동대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축하한다.

매체 흥수 시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인쇄매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가운데 대학신문은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언론으로서 대안언론·진보언론의 역할을 해왔다.

대학신문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와 대학과의 관계, 즉 대학의 사회적 위상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성격은 구성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단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 속에서 대학매체의 한 축을 이루는 대학신문 역시 사회비판적 기능을 갖는다. 일단 대학신문은 기본적으로 자유, 영리추구나 이익과 상관없는 순수함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든 특수성때문에 87년 민주화 열기속에 만들어진 많은 진보매체들보다 의미가 깊다.

대학과 사회에서 비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썩은 물이 내부에 고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는 즉,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린 생명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창간 50주년을 맞는 동대신문 기자들에게 같은 배를 탄 언론일꾼으로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 수렴을 기본으로 대학내 제반 모순의 적결과 더 나아가 사회비판과 대안찾기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더욱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면서 독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중성이라는 그릇속에 진보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나 독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는 속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주인된 삶’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동시에 독자대중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기울일 줄 알며 독자들 곁에서 숨쉬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한다.

김효섭(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100년을 향해 가는 ‘동대신문’이 되길

우리가 4년 이상을 부대끼며 생활하는 공간인 ‘온방골’의 대표적 언론사가 된 삶이나 먹은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50여년이나 되는 세월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고통과 싸우며 이루어 낸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은 언론 계열의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만 ‘언론사’란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쉽게 꾸러 나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랜세월 발전을 거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동대신문사는 어려운 과정을 굳건히 이겨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겠지요. 갈수록 변화하는 대학인의 사고방식을 따라잡는 알찬 내용과 날카로

운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신문을 만들어내고, 또 언론을 탄압하는 무리들에 대항하며 학내 신문사를 지탱해 나간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동대신문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철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날이 발전하는 동대신문사가 되길 바랍니다. 늘 한 발 앞서서 학우들을 이끌 수 있는 언론, 참된 의식과 깨어있는 사고방식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동대신문사... 진정한 학우들이 바라는 깨끗한 언론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하선정(경주캠 교육방송국 학생방송장)

치열함과 독자위한 배려를 잊지말자

얼마전 동대 신문사 기자들과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함께 농구 시합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몸풀기 정도로 시작했던 경기가 열정적으로 뛰는 동대 기자들 때문에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 동대 기자들을 보면서 ‘농구를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 신문도 치열하게 잘만들겠다’는 믿음이 들었다. 또 동대 신문을 보다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

구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지면을 별로 차지하지 않는 짧은 문구지만 그 안에는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많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대신문은 항상 독자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짧지만 중요한 문구를 잊지 않고 넣는 것이다.

50돌을 맞는 동대신문사가 앞으로도 치열함과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래 본다.

계지은(숭실대학신문사 편집장)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재도약

구성원들의 참여확대·학내 다양한 관심 필요

동약 내의 4개 언론사(동국(東國)편집위원회, 동대신문사, 동국POST, DUBS)는 학우들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을 이기지 않아 왔다.

그렇기에 동대신문의 창간 50주년은 모든 동국인과 발행을 위해 힘쓰는 기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내외의 사건들을 주마다 보도할 뿐만 아니라, 폐간위기와 수많은 사건들에 휩쓸리면서도 곳곳하게 학우들을 위한 펜을 놓지 않기로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학우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내의 여론을 주도하던 신문, 교지 등 대학언론도 ‘대학언론의 위기’를 인정하고 그늘에 밀린 ‘활자’를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해왔다.

동대신문도 면수를 늘리고 지면을 칼라로 단장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제까지 동대신문이 학내 정보제공에 중심을 두어 왔다면, 지금부터는 학우들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추어 여론에 좀더 귀기울이고, 학우들의 입장을 함께하는 언론으로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이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단순한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대학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입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대학언론이 스스로 변화의 창조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창간 50주년이 동대신문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서울캠 교지편집위원회

언제나 젊은 ‘동대신문’은 나의 어머니

내게는 두분의 엄마가 있습니다. 나를 20년 동안 키워준 엄마와 나를 지난 3년 동안 길러준 새엄마, 동대신문이 있습니다. 엄마는 195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새엄마인 동대신문도 195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두분 모두 올해 50세가 됩니다. 새엄마 동대신문 생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난 지난해 겨울 동대신문사를 퇴임했습니다. 정식으로 비보(?)를 알린 것은 지난 3월 6일자 동대신문이었구요. 이른바 퇴기(退期)가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새내기 퇴기지요. 어떤 이는 날더러 퇴기(退妓)라고 부르더군요. 글썸, 그만쯤 꽃다운 시절이 갔다라는 뜻이겠지요. 네, 지난 3년, 내게는 분명 꽃다운 시절이었습니

다. 아마도 신문사를 ‘정상적’으로 퇴임한 사람에게 신문사 생활 3년은 분명 꽃다운 시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반추해보면,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기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 순수하게 젊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이상 괴를 끓이지 못하고, 관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이상 반점을 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에 젊음을 희석시켜 가고 있는데, 희석시킬 것인데, 동대신문은 언제나 젊겠지요.

김미경(99학년도 편집장)



사설

생각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과 서너 달 전, 세기말의 언론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서양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무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신문·방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새해, 새천년이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장미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로부터 서너 달이 지난 요즈음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독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 밖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라 안 모습은 여전한 단기 4333년일 뿐이지 않은가?

큰 예로 엇그제 끝난 16대 총선 결과를 들어보자. 선거과정은 예년과 같은 폭로·비방·흑색선전전이었다고 세금을 안내거나 군대를 안가고 전과만 많은 무자격후보들도 혈연·지연·학연을 찾아 무난히 당선되었고, 망국병이라는 지역주의는 '고착'의 단계를 지나 '완성'되었다.

작은 예로는 전국의 대학들이 봄살을 앓고 있는 소위 등록금 투쟁을 살펴보자.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경직된 논리로 말로는 개혁과 민주화를 외치며 행동은 구태의연하게 비민주적·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고 비이성적 물리력의 동원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우리 동국대학교의 사정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 우물 안치렁 좁은 테두리 속에서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놓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기나 할까?

어쨌든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마도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며, 그 괴리의 정도는 언론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의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가지(無價紙)를 마구 찍어 쓰레기소각장으로 직행시켜 공해를 유발하면서 벌이는 환경개선 캠페인은 너무나 공허하지 않은가? 비판의 대상이어야 할 권력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내는 것으로 부족해 탈세와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스스로 거대 재벌, 거대권력이 되버린 독점언론의 미사여구가 얼마나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 4월 15일로 우리 동대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늘 그랬었던 것처럼 이 날을 자화자찬으로 매우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없다. 자랑스러운 역할도 많이 했지만 우리 동대신문도 기성언론 못지 않게 반성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80년대의 상담기간 지속되었던 운동권이론 일색의 편향된 지면구성이나, 90년대 들어 심해지고 있는 가벼운 읽을거리 중심의, 유행을 좇는 편집이 그러하다. 아무리 정보화 사회·인터넷 시대라 '종이' 신문 편집이란 일종의 3D업종이었다 하더라도 대학신문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란게 있지 않은가?

그래도 대학신문은 기성언론들처럼 썩지는 않았다고 자위해 본다. 우리는 그들처럼 가진 것, 지켜야 할 기득권이 많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대학신문은 아카데미즘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정보매체시대 하더라도 종이신문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대학마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요즈음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대학간 경쟁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지천명(知天命)의 연륜을 자축하면서 동대신문은 독자들에게 거창하지 않은 작은 약속을 하나 드리려 한다.

즉, 독자들을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화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함께' 호흡하겠다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젊은 동국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겠다는 것, 그리하여 신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높은 품격을 유지하는 측면의 경쟁에서 타 대학신문보다 앞서서, 궁극적으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전체 대학 사회에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작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우리 스스로 독자에게 내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대신문사의 전 동인·기자·제작지원자들은 최선을 다하려 한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 비판과 질책을 바란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50년을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



동대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내 사회조사학회에 의뢰,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주

인터넷 사용증가, 정보화 추세 반영하는 결과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는 2000학년 3월 29일까지 등록되어있는 학생수(서울: 1만2천7백5십8명, 경주: 8천9백2명)를 기준으로 표본오차 5를 감안하여 총424명(서울: 252명, 경주: 172명)의 표본수를 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두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집단을 캠퍼스, 성, 학년에 따라 나누어 표집하는 층화표집법을 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층의 표본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사하는 할당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실제조사는 2000년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들이 응답자를 찾아가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조사원들이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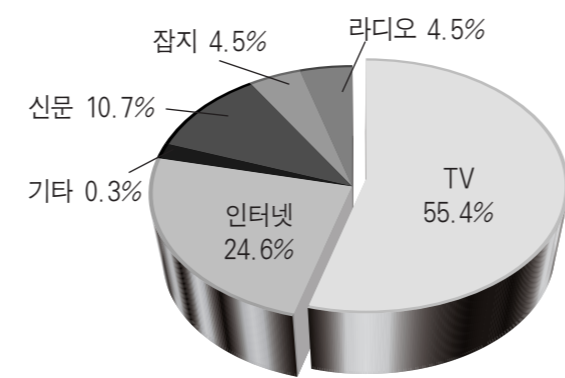
응답자의 캠퍼스·성·학년 분포

캠퍼스	%(명)	성	%(명)	학년	%(명)
서울캠퍼스	59.1(250)	남자	56.3(238)	1학년	27.4
		여자	43.7(185)	2학년	24.6
경주캠퍼스	40.9(173)	여자	43.7(185)	3학년	23.9
				4학년	24.1
계	100.0(423)	계	100.0(423)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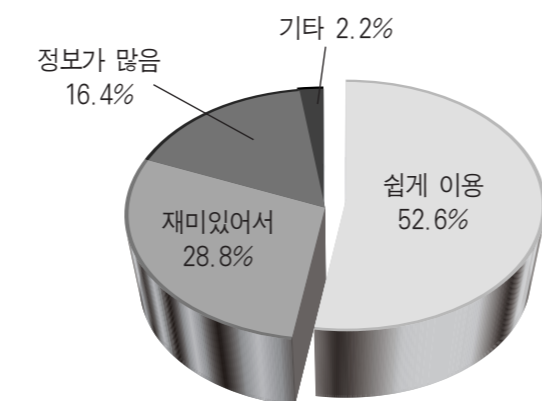
성별 선호매체

성별	선호매체							전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기타		
남자	14.3	3.4	0.9	51.0	30.0	0.4	100.0	
여자	6.0	6.0	9.0	61.0	18.0	0.0	100.0	
전체	10.8	4.5	4.5	55.4	24.6	0.2	100.0	

가장 좋아하는 대중 매체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중매체 선호도

본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작년 이어 2000년에도 TV인 것으로 조사됐다. TV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서도 우선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학생들의 매체 선호도를 보면 TV가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24.6%), 신문(10.7%) 등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52.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미있어서(28.8%), 정보가 많아서(16.4%)라고 응답했다. 성별매체 선호도를 보면 남학생은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잡지와 라디오 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시청 프로그램을 보면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이 59.5%로 가장 높았고 뉴스(15.3%), 스포츠(12.9%)프로그램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볼 때 교양 프로그램보다 드라마,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뉴스·스포츠 시청률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용빈도의 변화

이번 대중매체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비롯한 PC통신의 이용자는 17.9%로 TV, 신문에 이어 세번째 빈도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29.2%로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24.6%의 선호도를 보이며 신문(10.7%)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정보화의 추세를 짐작케하는 결과이며 학생들이 최근 교내 컴퓨터의 보급과 PC방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용이한 매체로 인식하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교 학생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찾기(51.8%)이며 전자우편(27.3%)과 게임(10.9%) 순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명은?

(주관식 문항-10회 미만은 제외)

프로그램	빈도
허준	108
스포츠	21
뉴스	21
순풍 산부인과	19
역사스페셜	15
음악프로	14
멋진만남	12
일요일 일요일 밤에	11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빈도	퍼센트
전자우편	108	27.3
정보찾기	205	51.8
대화방	30	7.6
게임	43	10.9
기타	10	2.4
합계	396	100.0

▶ 12면에 계속

4·11 학생총회 성사

총학, 지속적인 등록금 협의 결의 ... 본관 부분 점거중

학생총회가 지난 11일 3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7년 만에 성사됐다.

이 날 총회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총학생회장 인사발 △기간 경과 보고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2%인하안에 대한 논의 △단식투쟁 해단 결의 발인 △본관 전체점거에 대한 논의 △남부 거부자 상황보고와 정리 결의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이영수(전통4) 위원장은 "전례 없는 큰 규모로 학생총회가 성사되어 매우 기쁘다"며 "더욱 강력한 결의로 등록금 협의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총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외치며 본관 점거에 들어갔다. 전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3층과 4층 행정

실이 삼시간에 점거됐다. 특히 총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측과 교직원들이 2시간에 걸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복(반도체과 학4) 총학생회장은 "교직원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며 "학생총회에 나온 많은 학생들의 뜻을 확정한 만큼 본관 점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복지실(실장=선상규)의 정경

섭 계장은 "폭력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사무실을 점거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측은 직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 14일 본관 각 행정실의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학교측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은미 기자



4·19 등산대회... 제 3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2일 14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등산대회는 지난 11일 학생총회 후 총학생회의 본관점거와 직원노조와의 불협선언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김은미 기자 junkiga@hanmail.net

4·13총선 결과 본교 출신 11명 당선

13일 진행된 16대 총선 개표결과 본교출신 중 11명의 후보자가 당선됐다. 당선자를 살펴보면 △전국구 김기재(민주당, 행정대학원 93졸) △전국구 윤철상(민주당, 행정대학원 93졸) △전국구 황승민(한나라당, 상학 63졸) △경주 김일운(한나라당, 경영대학원 92졸) △김진 임인배(한나라당, 대학원 95졸) △홍천·횡성 유재규(민주당, 정외 60졸) △부평갑 박상규(민주당, 국문 61졸) △용산 설송웅(민주당, 수학 65졸) △동대문을 김영구(한나라당, 경제 62졸) △대구동구, 강신성일(한나라당, 문화예술대학원 97졸) △전국구 신영권(한나라당, 문화예술대학원 95졸) 등이다.

뉴욕주립대학 총장 본교서 박사학위수여

자매대학인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의 총장이 다음달 8일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를 위해 뉴욕주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일행 3명이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본교를 방문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위수여는 본교와 뉴욕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지난 95년부터 '일효전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서 출판하는 사업을 하는데 뉴욕주립대학 총장의 지원이 컸었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본사 창간 50주년과 창업지원단 개원 기념

동국벤처축제 다음달 8일부터 개최

벤처특강, 창업경연대회 등 행사 다양

'동대신문 창간 50주년·벤처 창업지원단 개원 기념 동국 벤처 축제'가 다음달 8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열린다.

본사와 본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벤처 강연회 6회 △벤처 창업 경연대회 △벤처 쇼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학생들에게 벤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창업 의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축제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된다.

벤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는 벤처특강은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 △벤처기업의 정식 △벤처기업과 엔젤 △벤처기업과 코스닥 △벤처기업과 특허 △벤처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며, 교내 학부·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벤처 창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해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발표회를 갖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늘(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동국관 2층 창업지원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창업지원단 이종욱(정보관리학) 단장은 "벤처축제를 통해 재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내용 ▶1면 하단광고)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경주캠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총학 비대위 선출 ... 6월초 재선거 결정

경주캠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강훈·경영4 이하 중운위가 △총학 비대위 건설 △총학생회 △학생총회 등을 안건으로 지난 11일 총대의원회에서 개최됐다.

총학 비대위 건설에 대한 안건은 비대위 체제 자체가 총학생회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이 많았으나 이강훈 위원장은 "총학이 꾸러지지 않은 이상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비대위 체제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비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위 건설과 관련해 중운위 위원들은 "총학의 건설이 시급하다"며 "비대위가 꾸러진다 해도 총학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있어

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졸업준비위원회 신성식(법4) 위원장은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학우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큰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며 총학 재선거를 치를 경우 발생할 것될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중운위 위원들은 오는 5월초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6월초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를 건설해 여름 방학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로 조태영 불문대 회장, 이성우 상경대 회장, 최현수 야총회장이 추천됐으며, 조태

영 회장 4표, 이성우 회장 7표, 최현수 회장 0표를 얻어 이성우 상경대 회장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이성우 회장은 "짧은 임기가 되더라도 학우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치러진 학생총회 무산과 관련해 학생대책위원회(위원장=정재훈·사복4 이하 학대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학대위의 존립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학생기구간에 광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호 기자
terry@mail.dongguk.ac.kr

9기 한총련 의장에 조선대 이희철 총학생회장

대의원대회서 선출... 조국통일 3대헌장 관철 결의

제8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대회(이하 대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다.

대대회 첫날인 7일, 학생들은 회의장소인 전남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약간의 마찰을 빚었으나 무사히 사전행사를 치렀다. 7일 밤 11시 전국 178개 대학에서 모인 2천여명의 학생대

표들은 전야제를 갖고 자정을 넘긴 8일 새벽 1시에 개막식을 가졌다.

이후 열린 대대회 결과 총대의원수 1천3백45명중 제적 및 사고를 제외하고 480명이 투표하여 462표 찬성, 7표 반대, 11표 무효로 조선대 이희철 총학생회장이 한총련의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조국통일위원장은 창원대 총

학생회장이,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은 대경총련 의장이 겸임하고, 한총련 대변인은 서총련 의장이 겸임하게 됐다. 제8기 한총련 이희철 의장은 "미군안민화살 규탄, 반미·김대중 정권 퇴진 기치 아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한총련 학우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미군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 민족특별위원회' 결성과 조국통일 3대헌장 지지관철을 결의하는 대대회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살의 길 50년

윤청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동대신문이 창간 50년을 맞는다. 필자가 동국에 입학하여 '동대시보'를 처음 만났던 것이 1959년이었고,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동대신문기자가 된 것이 1960년 4월이었으니, 동대신문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만 해도 동대신문은 세로쓰기에 은통한문글자로 뒤덮였고 특히 '보리수'란 한자 육편을 찾아보아야만 읽을 수 있을 만큼 난해한 글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가로쓰기에 한글로 채워지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불교계가 정재를 모아 설립한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행을 닦는 인재의 육성배출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영악한 중생의 육성 배출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 길을 열어갈 자리이타의 보살을 키워내자는 데 대학살림의 목표가 있었다는 말이다.

동대신문도 이 건학이념을 살려가고자 '보리수'란 마련, 세속의 길보다는 보살의 길, 지혜의 길을 열어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보살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일찍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이렇게 서원을 세운다. 나는 이 세상을 청정하게 정화하겠다. 나는 모든 집착을 버리겠다. 나는 모든 중생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나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나는 밝은 지혜로 육바라밀을 수행하겠다. 나는 괴로움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그 괴로움을 대신 받겠다. 그리하여 나는 더러운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기이익에만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서원대로 살면 부처는 치사한 속물에서 벗어나 대장부의 멋진 한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동대신문이 큰 길로 이끌어 주는 등불이 되기를...

알림

중간고사 때문에 2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8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생이채비빔밥(1500) 민두탕수(1300)
화	닭꼬치구이(1500) 잡채밥(1300)
수	제육김치덮밥(1500) 소고기이채밥(1300)
목	짜장소스볶음밥(1500) 소고기탕면(1300)
금	생선까스(1300) 두부김치(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치킨까스(1500) 황태뚝배기(3,300) 어묵이채볶음(1,300) 돈까스갈비구이(3,500)
화	양송이볶음밥(1,300) 대구매운탕(3,300) 해물덮밥(1,500) 닭강정(3,300)
수	히어라이스(1,300) 참치전골(3,300) 비빔밥(1,300) 돈까스(3,500)
목	불고기백반(1,500) 따로국밥(3,300) 순대어묵볶음(1,300) 조기구이백반(3,300)
금	오징어볶음(1,500) 골뱅이전골(3,300) 콩나물볶음밥(1,300) 참치회덮밥(3,3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제육두부찌개(1,300) 속국(1,300) 돈까스(1,500) 비지볶음밥(1,800)
화	배추국(1,300) 열갈이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집채덮밥(1,800)
수	편육국(1,300) 근대국(1,300) 돈육덮밥(1,600) 갈비탕(1,800)
목	김치두부국(1,300) 쇠고기갈비국(1,300) 새우까스(1,800) 카레라이스(1,500)
금	감자양파국(1,300) 돼지국밥(1,300) 햄이채볶음밥(1,600) 스파게티/모닝빵(1,800)
토	햄김치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일	열무김치비빔밥(1,300) 냉이된장찌개(1,300) 오징어덮밥(1,600)

(단위:원)

2000학년도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회 모집학과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문, 한문(경주),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 경영(경주),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응용생물, 조경(경주), 가정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응용생물, 가정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응용생물, 가정,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의학계	한의(경주), 의(경주)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연극영화, 경영, 전자공, 컴퓨터공)	

회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학과

과정	계열	모집학과	비고
석사	공학	영상제작학과	● Flame과 Maya 40대 보유
		멀티미디어공학과	● 30여억원을 들여 설립한 첨단 산업체 수준의 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네트워크관리학과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 석사과정 화, 응용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개설 학과임.
 - 석·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한의, 의학과는 제외)
- 지원자격
 - 가. 석사학위과정: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0년 8월 취득 예정자.
 - 나. 박사학위과정:국내·외 정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0년 8월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모집요강 참조
- 전형방법:서류심사와 구술시험
- 지원서 교부일시 및 장소
 - 가. 교부일시:2000. 4. 27. (목) ~ 5. 12. (금) 오전 9시~오후 5시
 - 나. 교부장소:서울 - 학술관3층 대학원교학과, 경주 - 진흥관1층 지역개발대학원내 대학원 교학과 (단,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7시이후는 각 교부장소 해당건물의 수위실에서 교부함.)
- 지원서 접수일시 및 장소
 - 가. 접수일시 : 2000. 5. 9.(화) ~ 5. 12.(수) 09:00~17:00
 - 나. 접수장소 : 교부장소의 동일
- 전형일시 : 2000. 5. 19.(금) 10:00



자기 성장을 위한 만남

- MBTI를 통한 집단상담-
- 내용:MBTI(성격유형검사) 실시 및 집단상담
 - 일시 및 장소
 - 1차 : 4월 14일(금) 오후2시 본관 2층 학생상담실
 - 2차 : 5월 4일(목) 오후 2시 본관 2층 학생상담실
 - 비용:무료(MBTI검사 경험유무와 상관없음)
 - 접수
 - 1차:4월 3일(월) ~ 4월 11(화)
 - 2차:4월 3일(월) ~ 5월 2일(화)
 - 접수처 : 본관 2층 학생상담실(선착순 50명)
- * 자세한 문의는 학생상담실(구내전화 3931)로 전화해 주십시오.

학생상담실

특별초청 강연회

- 본원이 주최하고 삼성언론재단이 후원하는 특별초청 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00. 4. 19(수) 19:30~21:00
 - 장 소 : 덕암세미나실(문화관 1층)
 - 연 사 : 조지 후레데릭스 박사
(미국 캔사스대학 교수)
 - 주 제 : "디지털시대의 행동과 언론"

언론정보대학원

이동병무 상담실 운영

2000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이동병무 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0. 4. 25(화) 09:00-17:00
- 장 소 : 상록원식당 앞
- 상담요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사무처

백일장

- 국어국문학부(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문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갖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장을 접수합니다.
- 일 시 : 2000. 4. 29(토) 10:00~17:00
 - 장 소 : 만해광장(우천시 중강당)
 - 부 문 : 시, 소설, 수필
 - * 각 부 문 입선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줌.
 - 신청기간 : 2000. 4. 4 ~ 4. 21
 - 신청장소 : 국어국문학부 사무실
(교수회관 427호, 전화 : 2260-3151)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본교 3사관학교와 위탁교육 협약체결

오늘(17일) 체결식

본교는 오늘(17일) 경북 영천에 있는 제 3사관학교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강좌 개설에 관한 협약 체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체결식은 본교 송석구 총장을 비롯 3사관학교장과 일반참모·특별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주요직위자 상호소개 △학교소개 영화시청 등의 식순에 의해 진행됐다.

협약서에 의하면 입학자격은 군의 간부로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며, 서류심사나 면접과 같은 특별전형은 원칙으로 하여 선발한다. 또한 수학기간은 2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한다.

본교 행정대학원에서는 이미 89학년도부터 계통대 육군본부에 위와 같은 강좌를 개설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향관 4월중 완공 ... 다음달 입주

해화별관 공사는 지연될 듯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다향관 공사가 4월중으로 마무리되고 보리수등 대부분의 매장은 다음 달 입주할 예정이다.

새로 들어설 다향관의 내부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1층=보리수, 복지매장 △2층=SRC(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 세미나실 △3층=정보관리실, 통신실, 복지매장 2곳 등이다. 도서관 지하로 이전했던 이발소는 계속 그 자리에서 미용실과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5월말 경에 완공돼 전자계산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화별관은 공사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오는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제3열람실 철야 개방

오늘(17일)부터 27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오늘(17일)부터 27일까지 4층 제3열람실을 철야개방한다. 도서관 철야개방은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중앙 현관문을 폐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철야기간 동안 가방이나 책 등으로 자리를 맡아 놓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을 삼가 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질서유지를 당부했다.

여학생실 연등과 사연 공모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축원문(사연)을 공모한다.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독창적인 연등을 만들거나 감사의 마음과 기원하는 마음 등의 사연을 써서 응모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산관 1층 여학생실에서 받으며 5월 9일에 각각 4명씩 선발하여 시상한다.

등록금 납부 지난 15일 최종 마감

총학, 거부자들 등록금 납부결정 ... 학교, 밀린 학사업무 처리기대

본교는 지난 15일 오전에 1학기 등록금 수납을 최종 마감했다.

최종 납부 마감은 방학중 학교측과 학생회간의 3차례에 걸친 등록금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등록금 납부 고지서의 발송이 늦어지고 등록금도 저조해 계속 연기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학4)는 지난 달 28일 비록 무산되었지만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논의하고 납부거부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지난 11일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본관을 점거한 이후 납부거부자들의 등록금납부를 결정했다. 학원자주화 투쟁

위원회 이영수(전통4) 위원장은 "각 개인의 삶도 소중한 것이다"라며 등록거부로 인한 제적조치 등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용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휴학신청도 받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다.

등록금 수납이 완료됨에 따라 학사지원실(실장=이병진)의 한 관계자는 "학적관리나 학사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많았다"며 "그 동안 미뤄왔던 업무들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학사지원실은 오늘(17일)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제적생들에게 각각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전동대회 상정안건 무효처리

동연, 회칙 적용하지 못하고 진행

동아리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이해연·사회3, 이하 동연비대위)는 지난 6일 진행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통과된 신규 동아리 등록결정과 미등록 동아리 제명 두 안건을 무효로 무효 처리했다.

61개 동아리 대표자 중 31명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17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퍼머리스 등 △창업연구회 프론티어 △기독교 연합회 △증산도 △DNA 5개의 동아리 중 DNA를 제외한 4개의 동아리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도 가입이 결정됐다.

그러나 대표자들과 비대위원들이 △무효표가 1/5 이상인 경우에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1차에 한해 재투표해야하고 △투표시에는 무효표에 관계없이 다수득표에 의해 결정하는 동아리 회칙 8조를 이날 회의

에 적용하지 않은 채 통과시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등록취소를 결정했던 기우회 안건에서도 회칙상 문제가 발생했다. 기우회는 동아리 재등록기간까지 등록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됐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서류를 제출치 않은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준동아리로 강등한 다음 전동대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등록시행 세칙 제17조 4항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연비대위는 이러한 안건들을 5월 중순에 진행될 임시전동대회에서 다시 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연 동연비대위장은 "회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등록금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감면금액에 초점은 곤란 문제의 본질 인식해야

10여년 간 매년 계속되는 등록금 문제가 '관계화'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이 동결된 98년과 99년에 등록금 삭감을 의처됐고, 올해 역시 등록금이 13% 인상됨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와 학생회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문제가 자칫 봄에 한 차례 피었다가 저버리는 '개나리협'의'로 머무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우려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협의는 단순히 학교측에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을 올린 것에 반대하는 협의가 아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나라 대학 사회의 모순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대학을 기업화해서 상품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복(반도체과학4)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협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학원의 주인주체가 되는 것"이라

며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학생총회 때 "등록금 인상분 환불받아서 얼마에 맞되는 음식을 사드리겠다"는 새내기를 발언이나, 본관점거 후 "30만원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다"라고 썩어진 대자보의 내용들을 보면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토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감면금액 등에 치우쳐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정용길 기획예산처장은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재정의 확보밖에 없다"며 "13%를 인상하더라도 우리대학의 등록금 액수는 수도권 대학 전체 평균액 수보다 적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학생들도 학교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측은 투명하게 예결산 책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금 협의는 '개나리 협의'라는 오명을 벗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회전무대

4·19 < 모교지

0...4.19 등산대회가 열린 지난 12일, 일부 학생들도 다른 장소에서 등산대회를 열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교 행사가 무관심한 학생들이 등산대회 다음날이 총산이라 이틀동안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놀러갔다고.

학생들 학교행사와 투표를 무시하고 꼭 모교지를 찾아야만 했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등산대회 코스를 설악산이나 강촌으로 바꿨으면 학생들 2%는 확보한건데..."

물 안 나오는 화장실

0...지난 15일, 정보문화관 화장실에서 불일을 못보고 그냥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내용인즉 학생들이 양변기에 물을 내리려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 한편 사용한 양변기를 사용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이때문에 화장실을 찾아 우왕좌왕 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물이 100% 부족해!"

없다 없어!

0...순잡이에 의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만해광장 계단이 왼쪽으로 올라갈 경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농구 코트를 새로 만들어 기껏 새단장을 해놓았지만 계단을 양쪽으로 가른 뒤 한쪽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처사인지.

이에 계단을 잘못 올라 갔다 다시 내려오는 학생 한마디 "들어가라고 만든건지, 다리운동하라고 만든 건지"

남북정상회담

0...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소식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데.

남북정상회담 소식발표가 기쁜 일임에도 틀림없지만 총선을 3일 앞두고 발표를 한 것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고.

이는 호랑이가 마늘과 속 먹는 것을 며칠 못 참아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꼴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호랑이는 마늘먹고 맴맴, 민주당은 제1당 차지하려다 맴맴?!"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이메일 ID	dgp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진아	국특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7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 이 광고는 건전한 대학문화의 조성과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와 "iloveclub"이 함께 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공동광고

아리 연합회

리사고 판권

차 모금총화

분과 - 149,630원
 분과 - 85,000원
 파 - 157,000원
 파 - 110,000원
 파 - 100,000원
 연합회 - 398,370원
 1,000,000원

분과 주요 판권 동아리
 연합회, 아리, 탕, 포학당
 연합회 전담 예정입니다.

강여주 주선 동아리 생애여러분
 로 감사드립니다.

서 모금총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학 3년 전)
 후원: 정여, 비리(전)

아리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랑함 32기 시선집중?
 오랜만에 한번 모이자!
 왜? 그냥... 본지 좀 읽잖아?
 언제: 4월 15일 늦은 6시
 회비 필요없당! 왜?...
 한마디 더 → 철원이, 정원이...
 이반도, 배지연, 윤은이다!
 연락은 요기로 해! 3424-1494.

감성충전 100

경너

동문회

일시: 4.7월 6시

장소: 불상앞

회비: 민원(4월)

"대학생 언니오빠! 멋진 대학문화를 꼭 띄우주세요"

몇년후 우리가 대학가면 "우리가 있고 집단이 있는 대학문화는 선물로 줄게요!"

우리는 뭔가 다른 대학생살을 하고 싶어요!

무버지는 관심에서도 언제나 혼자 거든요.

대학생활만큼은 동아리 활동과 함께 하고 싶어요.

情까지 Digital 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무슨 동문회냐구요? 물론 우리 동문회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하게 전부 디지털로 할 수는 없죠. 사람과 사람의 정은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나'보다는 '우리'가 더욱 그리워질 때 - 건네는 술잔과 따뜻한 웃음으로 정이 깊어갑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꼭 필요한 아날로그식 만남 - 1,000여 개의 동문회가 있는 "아이러브클럽"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글거 서글거게 등만보이는 대학캠퍼스를 바~뀌~바~뀌~"

www.iloveclub.com은 동문회 문화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활동지수가 높은 동문회가 오프라인 행사를 할 경우 행사에 필요한 장소,음식,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1년에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
 3월4일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사, 4월9일 '먹만클럽'의 대역로 마로니에공원 일일장점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loveclub
 www.iloveclub.com



창간사

동대신문사가 창간 50돌을 맞이했다. 창간이래로 6·25, 4·19, 5·18, 6·27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속에서 민족사학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동대의 역사속에서 전 동국인의 열린 귀, 바른 입이 되었다. 반세기전 창간사를 통해 창간정신을 되새기며,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I. 대학은 크나 큰 사회속에서 문화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이라는 말은 아니다. 항상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의 무지를 계몽하고 사회의 불행에 해부하며 사회조직의 모순을 검토하고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한 설계도의 작성을 맡고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권위는 엄연하며 대학의 위신 실추는 곧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그 나라 발전의 상징이며 희망인 것이다. 숨은 정열이 대학에서 약동하고 비약의 터전이 대학에서 닦아진다.

II. 억압적인 언론정책 밑에서 완전히 우매(愚昧)화한 민중이 중세봉건사회에 있어서 농노(農奴)적인 신분관계를 타파하지 못하고 위정가 농단(農斷)의 희생이 된 것은 오로지 철통같은 봉건사회조직과 그의 엄중한 감시 밑에서 말과 행동의 자유를 박탈(剝奪)당한 소이(所以)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사회조직도 자체내에서 속성해 가는 경제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세력의 대두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간의 해방이 왔다.

소위(所謂) 정치적 민주주의(政治的 民主主義)가 사회발전의 유일한 「효율(高率)」이었던 시대로부터 언론의 자유는 인간(人間)의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서 신봉(信奉)되었으며 「따크 애이지」(암흑의 시대)에서 광명(光明)의 시대가 전개되고 인류사회의 진전(進進)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유독 사상의 진보는 항상 그의 입장을 썼었고 언론사상의 신창(伸暢)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문(新聞)이었다.

고립(孤立)되고 폐쇄된 사회에서 세계적인 연관을 가진 사회로 변함에 따라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날이 변화해 가는 세계의 정세를 민중에게 보도하고 또는 민중의 일반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전체적인 복리를 도모함에는 신문이 항상 선봉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언론 자유의 한 소산인 신문이 드디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유일무이(唯一無二)의 기관이었다.

III. 진리의 전당인 대학(大學)에 있어서 제기되는 명제는 일상 직접 인류사회생활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이곳에 대학생활의 생생한 움직임이 있고 부절(不絶)한 향상(向上)이 있으며 영원한 신의(信義)가 있는 것이다. 대학을 마치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이 그릇 해석되었던 옛 시대의 관념에는 자기마치 변천을 가져왔고, 진리의 탐구와 그의 실천의 제일 전사(第一戰士)인 학도는 사회생활(社會生活)의 중심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완전히 사회와 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면서 진리의 탐구란 자기 특색의 사명을 완수하는 곳에 대학의 대학

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 해방이 온지도 어언 육개 성상(六個 星霜), 불행하도 모은 학원은 스스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혼란속에 휩쓸려 그 혼란을 조장하는 제 일인자적(第一人者的) 활약을 어김없이 해왔다. 폭력과 모략과 중상이 학원을 뒤덮고, 가장 명량하고 희망(希望)이 있어야 할 곳에 암운(暗雲)이 저미(低迷)했으며, 진리의 탐구에 대한 의욕은 점차 사라져가고 퇴폐와 무기력과 방종만이 제멋대로 발호(跋扈)했다.

민국의 탄생과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태풍은 일과(一過)했고, 새로운 썩이 트며 사라졌던 희망은 소생하고, 잃어버린 명랑은 옛터로 다시 찾아 들며, 경박은 물러서고 진지(眞摯)가 나타났다. 스스로 더듬어 갈 「코스」는 결정되었다. 이제는 그 「코스」를 되돌아 빨리 뛰어 「효율」에 돌진할 때이다.

IV. 이와 같은 때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의 창간(創刊)을 보게된 것은 편이나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약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대기(大器)는 만성(晩成)이라고 한다.

그러면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이 지니고 나온 사명(使命)은 무엇인가.

진리(眞理)의 전당에서 유동하는 사회의 흐름을 감각한 학도(學徒)가 스스로 연마한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발표하고, 민중의 지도자로서 자부하는 학도가 사회의 여론을 지도하고 대중을 각성시키는 목적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발표기관(發表機關)이며 신문(新聞)만이 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본 신문발행(新聞發行)의 목적에 학(學)의 온상으로서의 대학(大學)의 본질(本質)을 천명하고 민족문화선양에 기여하며, 또는 인류(人類)가 주재하는 역사전쟁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학생(學生)의 생동적(生動的)·경험적 관찰력·추리력의 함양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자간의 사정을 말하며, 본 신문(新聞) 발행의 취지서(趣旨書)에 이조(李朝) 말엽의 정치의 부패와 왜제(倭帝)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수난이 정치적 실망(政治的 失望)·실의(失意)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민중의 생활영위의 방편으로서 신봉된 아이룡(亞耳龍)주의에 원인하므로 오늘의 역사의 변화가 제시하는 운명 공동체의 이념(理念)을 구현하고 국가의 부강, 민족경제의 재건성, 민족문화(民族文化) 향상(向上), 사회복리(社會福利)의 증진을 기도(企圖)하는 우리의 행동강령을, 중앙에 국제적 신의(信義)에 호소하고 전민족(全民族)을 조국전선규함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아이룡(亞耳龍)주의를 타파하고 민족언론(民族言論) 보도지의 과감한 진출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은 이와같은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이 이와같은 사명을 완수할지는 미지수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신세대(新世代)의 주인으로서 연학(研學), 내성(內省), 사색(思索) 창(創), 명상(冥想) 그리고 봉사(奉仕)를 선포하며 반영할 수 있는 프리즘의 분석을 표방으로 삼는 것과 관찰(觀察), 비판(批判)에 예의노력(銳意努力)할 것이 「동대신문(東大新聞)」의 본유(本有)하는 일반적 사회성(社會性)과 사학적(私學的) 독자성(獨自性)을 발현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동대신문(東大新聞)이며, 영원히 빛날지이다. <1950년 4월 15일>

대중언론 창출 그 한길을 가는 동대신문 반세기

1 동대신문 창간 (50년 4월 15일)

창간호가 두 개인 동대신문

1947년 가을, 문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선, 정익용 등을 중심으로 신문창간 준비가 이루어진다. 타블로이드 4면 '동국월보'의 창간. 그러나 게재된 몇 편의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온하다는 점과 정동문이 쓴 교수 프로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 채 압수처분을 당하게 된다. 당시 정국 38개 대학중 최초의 대학신문이 될 수 있었지만, 문화부내에서 만들어져 완전한 신문의 형태로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창간호라 이름 붙여진 신문은 1950년 4월 15일 당시 중앙 학생회 회장이었던 신국주와 이의운, 박내춘, 이종환, 오봉열등 신문동호인들이 유산되고 만 '동국월보'의 뒤를 이어 만든 대관 4면의 동대신문. 창간호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은 않다. 해방직후 붐비던 터지듯 급격히 증가한 좌우의 사상의 혼란과 그로 인한 좌익사상에 대한 탄압은 교육의 현장에서 가시화되었고, 사상이 아닌 사실보도에서조차 자유의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1964년 4월 24일 '다시 이 거리에 피를 뿌리다니'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3장이 문제되어 압수·소각당한다.

2 전란속에서도(1950년대)

피난지에서 만든 2호

1950년 6월 동대신문 제2호 조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따라서 동대신문 2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1952년 6월 발간하게 되지만, 조연현 동문의 '동국대학교와 나'라는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보일리실에서 불태워지고 만다.

동대신문은 그해 10월 1일 발행된 타블로이드 4면 '동국월보'로 간신히 명맥을 잇는다. 이 신문 역시 1면에 게재된 이형기의 논문과 학장의 격려사, 이종훈의 '경사진 항구'라는 시가 말쑥이 되어 중단되고 11월 20일 발행된 동대신문이 실질적인 2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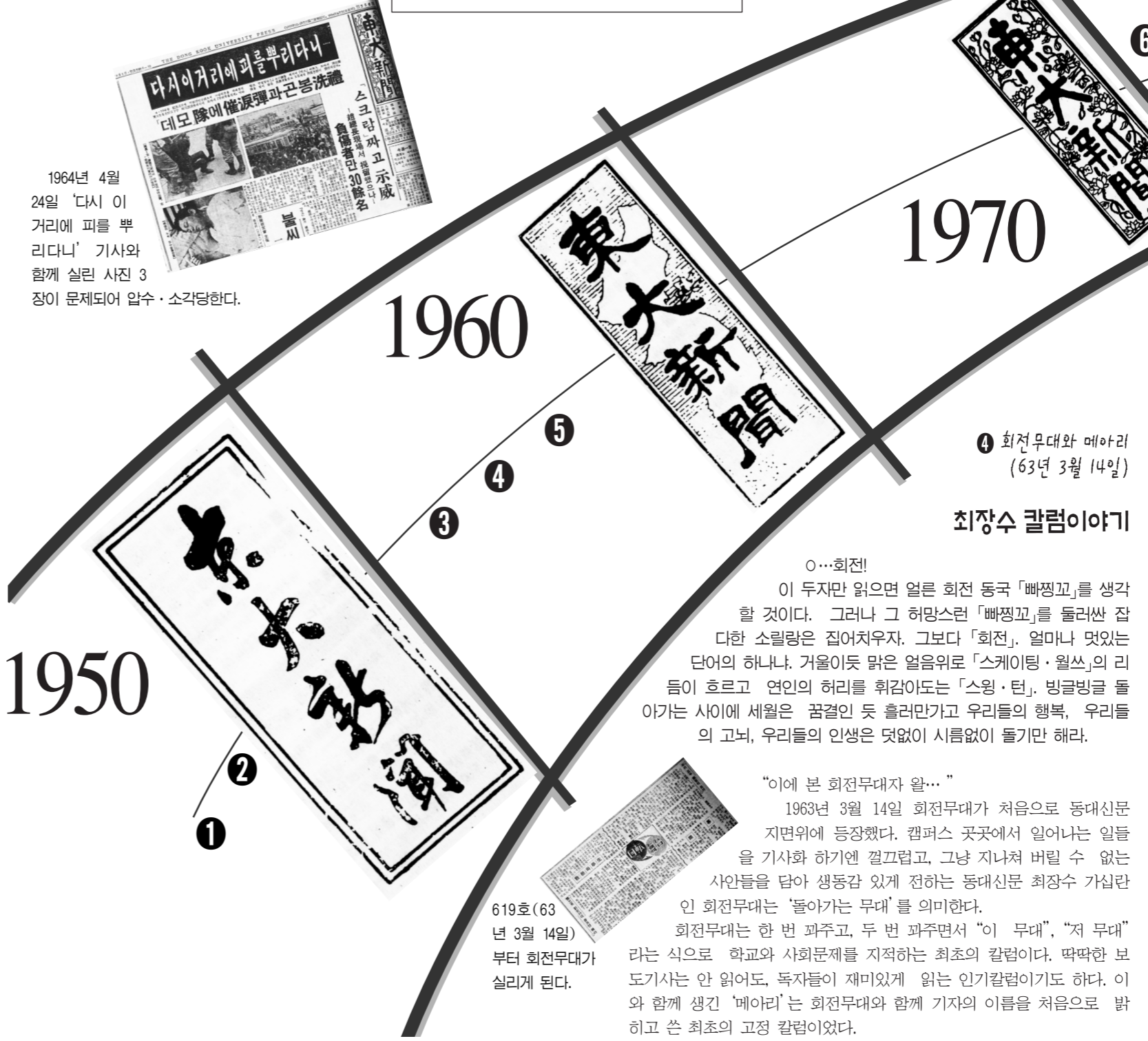
결국, 환도 후 1953년 4월부터 양주동교수의 지도하에 3호가 속간되면서 동대신문은 기반을 다지게 된다. 한편, 동국월보는 1955년 7월 7일자로 '동대신문'로 제호가 바뀌게 되고, 같은 해 9월 5일 '동대신문'로 제호를 변경한다. 지금과 같은 제호는 1962년부터 쓰이게 된다.

3 대학신문사상 최초의 호회(62년 7월 5일)

'꺼져가는 운동장의 꿈'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살벌한 판에 장충단쪽에 누닷없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착공됐다. 운동장이 없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던 동국대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 소식이였다. 중앙도서관 남쪽 장충단에 운동장을 설치하는게 당시 학생들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꿈의 자리에 정부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을 착공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동대신문 기자들이 밤 새워 만든 '동대신문 호회'가 아질질적 뿌러지면서 전교생이 대모를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동대신문의 호회는 대학신문 사상 최초의 호회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어진 건물이 후에 본교가 인수한 혜화관이다.



1950

1960

1970

4 회전무대와 메아리 (63년 3월 14일)

최장수 칼럼이야기

0...회전!

이 두자만 읽으면 얼른 회전 동국 「빠짱고」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허망스런 「빠짱고」를 둘러싼 잡다한 소릴랑은 집어치우자. 그보다 「회전」, 얼마나 맛있는 단어의 하나나. 거울이든 맑은 얼음위로 「스케이팅·월스」의 리듬이 흐르고 연인의 허리를 휘감아도는 「스윙·탄」,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이에 세월은 꿈결인 듯 흘러만가고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그늘, 우리들의 인생은 덧없이 시름없이 돌기만 해라.

“이에 본 회전무대자 말...”

1963년 3월 14일 회전무대가 처음으로 동대신문 지면위에 등장했다. 캠퍼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사화 하기에 절조롭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담아 생동감 있게 전하는 동대신문 최장수 기성인 회전무대는 ‘돌아가는 무대’를 의미한다.

회전무대는 한 번 파주고, 두 번 파주면서 “이 무대, ‘저 무대’라는 식으로 학교와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최초의 칼럼이다. 딱딱한 보도기사는 안 읽어도,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는 인기칼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생긴 ‘메아리’는 회전무대와 함께 기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고 쓴 최초의 고정 칼럼이었다.

619호(63년 3월 14일)부터 회전무대가 실리게 된다.



▲ 창간호(50년 4월 15일)
1947년에 동국월보를 창간했으나 게재된 몇 편의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온하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하여 1950년 4월 15일이 되어서야 대관 4면 순간제의 동대신문이 창간됐다.



▲ 제2호(52년 11월 20일)
전란의 와중에도 부산 피난지에서 타블로이드 4면의 '동대신문' 속간호를 발간하다.



▲ 제19호(55년 2월 20일)
19호부터는 대관 4면으로 증면을 단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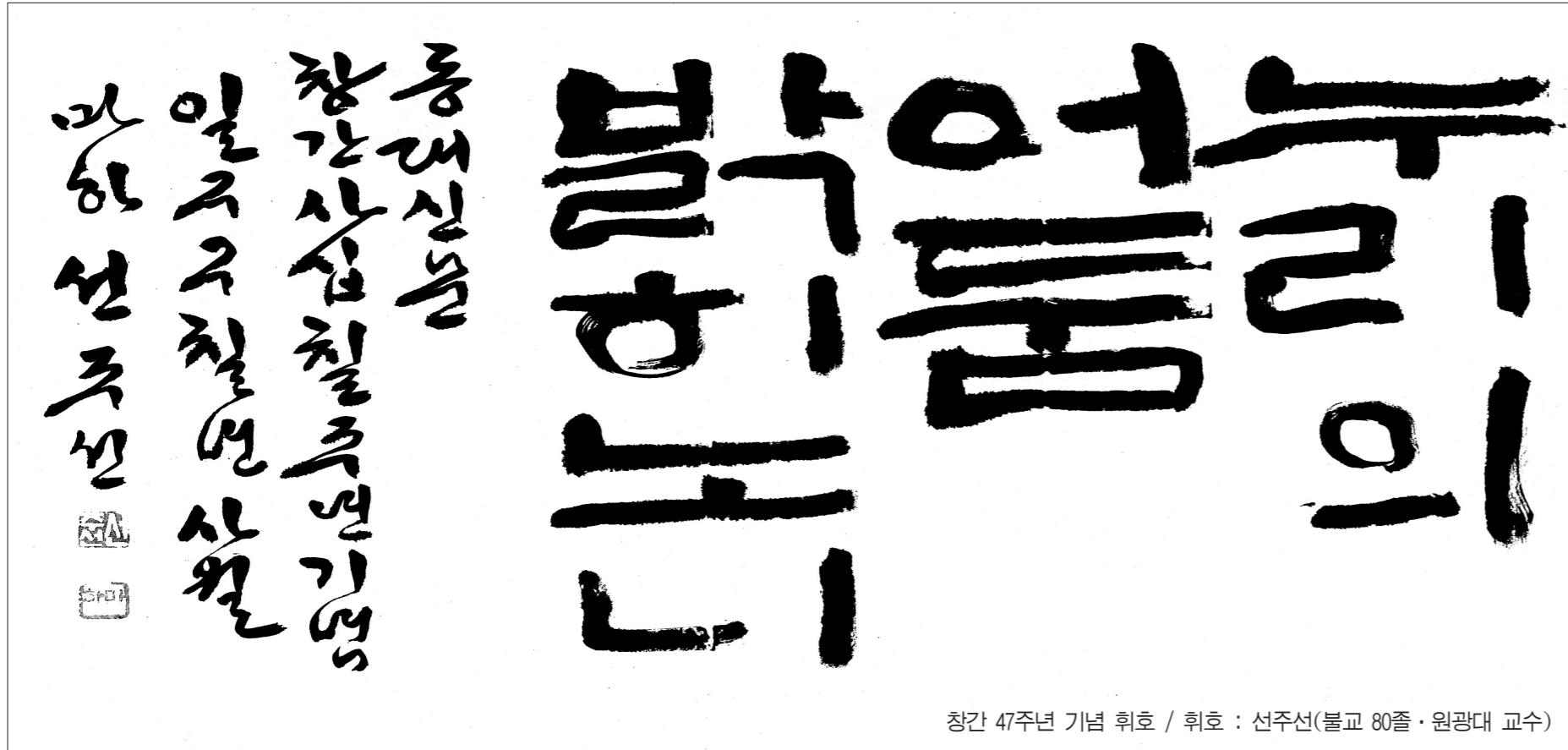
▲ 제200호(62년 7월 12일)
동대신문은 '동대월보', '동국월보', '동대신문', '동대시보' 등 수차례의 제호변경을 거쳐 창간 12년 만에 '동대신문'으로 제호가 고정된다. 이와 함께 불규칙적으로 간행되던 신문은 주간제로 정기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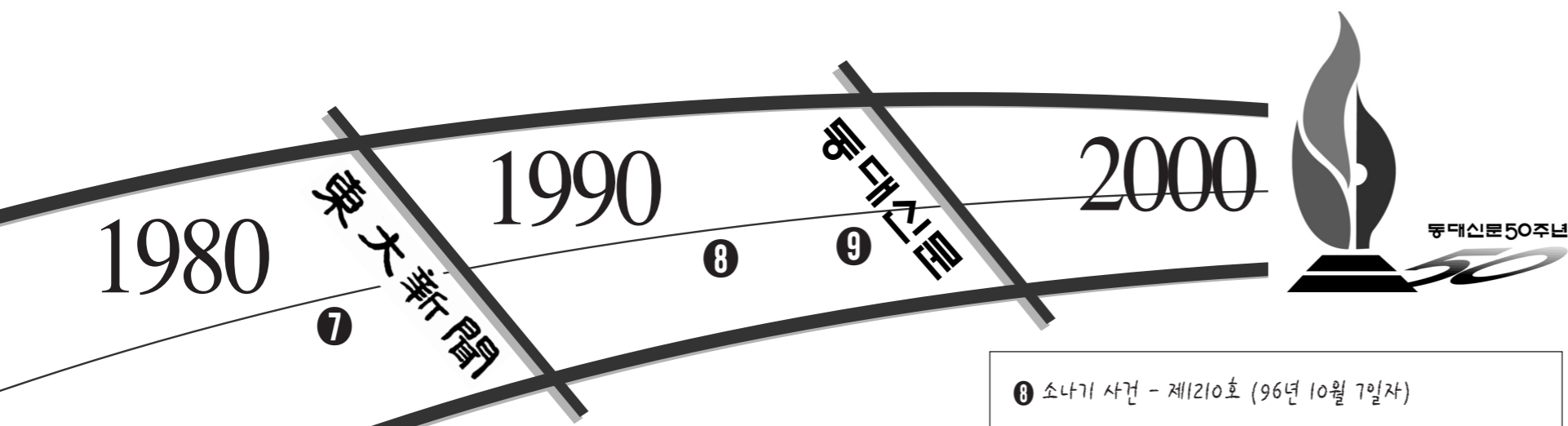
▲ 호회 제1호(62년 7월 5일)
'동대신문' 제호를 달고 대학신문사상 최초의 호회를 발행한다. 1면 제목은 '꺼져가는 운동장의 꿈'.



▲ 제542호(73년 3월 13일)
발간요일을 월요일 발간체제에서 화요일 발간체제로 전환한다.



창간 47주년 기념 회화 / 회호 : 선주선(불교 80주 · 원광대 교수)



1 가로쓰기 단행 - 제101호(89년 3월 1일)

한글 횡체편집 도입

창간 이래 견지해온 세로쓰기를 버리고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다시 태어났다. 88년도에 한겨레신문이 발간되면서 '국민의 신문'이라는 구호 아래 민간언론 사상 최초로 가로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신문 가운데 고대신문에 이어 중앙대가 가로쓰기를 시작했고 뒤이어 89년도에 동대신문도 독자의 요구에 따라 가로쓰기를 시작했다.

2 컴퓨터 편집시스템 구축(98학년도 1학기)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만난다

동대신문은 자체 조판이 가능한 매킨토시를 도입함으로써 원고 작성부터 입력, 편집까지 신문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신문사에서 작업할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지면이 아닌 모니터를 통해 동대신문을 만나 볼 수 있게 하였다.

3 5공시절의 동대신문(80년대 초)

벽돌신문과 853.4호

80년대 초반에는 국가정보기관원들이 대학본관 한 칸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고 학생 대표로는 '호국단'이라는 유신 정권의 산물이 존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언론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5공 초기에는 유신시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만 했으니, '전두환'의 '전' 자만 실려도 배포중지가 될 정도였던 것이다. 본지 765호(80년 5월 13일자) 1·2면에 실린 '유신독재 반대 각계 시국선언문'은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허연 여백을 남기며 게재된다. 이런 신문을 '벽돌신문'이라고 하는데 80년대 암울한 시대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4 소나기 사건 - 제1210호(96년 10월 7일자)

국가보안법에 위배된 낙서판

1996년 8월에 연세대에서 벌어진 제7차 범민족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이로 인해 제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규정을 받게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강도를 더해갔다. 문민정부로 정권이 바뀌긴 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롭지않은 않았다.

'소나기'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실는 낙서판이다. 당시 소나기는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다루었고 그 내용에 대해 당국은 이적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편집장과 관련기자 1명을 구속했으며, 이 로인해 약 1달 동안 신문발행이 되지 않았다.

소나기 사건과 관련해 기성 언론들은 "맹목적으로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서 사회에서 격리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논조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대학당국은 이번 일을 책임지고 대학신문의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에 편승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성 언론의 매카시즘 편파보도와 경찰 상부의 추궁에 의한 견수 올리기 식 포적수사"라며 기자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당시에는 '4.19나 5.16, 삼청교육대, 군사정권'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담기위해 현역 기자들의 투쟁이 필요했고, 이는 853.4호라는 이상한 지령의 신문으로 나타났다.

4.19기념호로 발간 예정이었던 853호 동대신문은 당시 쓰지 못했던 시위기사와 4.19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동우탑 추모행사, 4.19와 관련된 사실이 문제시되어 배포 금지를 당한 것이다. 신문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학내에 상주하고 있던 기관원에 신문을 모두 빼앗겼고 영구 보존을 위해 500부를, 학우들에게 돌릴 500부를 포함해 총 1000부를 간신히 빼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 호 신문을 만들면서 853호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당국과 비록 많이 배포되진 못했지만 호수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기자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 853.4호라는 기령의 지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의 동대신문 시절

정희성(국문 83졸, 81년도 본사 취재부장 역임, '프로스넛닷컴' 기획실장)

검열관과 실랑이 하던 그 시절

존자로 기사량을 제고, 특교(特G) 제 목으로 채워나가던 시대의 무게는 늘 스무살 더벅머리들에게 버거운 짐이었다. 5.18의 악몽이 있기 전인 이른바 '서울의 봄' 그 시절, 풍탕풍탕 활자가 빠져버린 지면은 마치 마른벼집 같았다. 검열관과 실랑이 끝에, 끝내 기사를 채우지 않고 허연 공간인 채 신문을 발행한 뒤의 화요일, 학생회관 지하의 신문사를 더 무겁게 짓누르던 침묵은 우리들의 스무살 실어증(失語症)이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주머니를 뒤적이고, 눈을 맞추면 우리는 어느새 스카라 극장 건너편 다동의 후미진 술집에서, 속이 허영게 벌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들의 지폐증을 치유해 보려 애쓰곤 했다. 그렇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날리는' 애절함도 없이 80년도의 봄은 갔고, 우리는 그에 3학년 부장단으로 81년의 동약을 지키게 되었다. '그대들이 우리 동대신문사 기자들을 애인처럼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 사실입니까?' 우리는 깰것처럼, 정말이지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승냥이의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던 그때의 눈빛이야 이제 아니지만 가끔 동약을 오르노라면 저 20년 전, 79년도부터 82년 봄까지 동대신문 기자로 함께 살았던 '불구(不具)'의 이름들이 떠오른다. 그 이름들이 '50년 동대신문'의 찬란한 이름에 감히 비굴한 흔적은 아니었기를 지금도 조바심으로 간구해 본다.

서창훈(정외 94졸, 89년 본사 편집장 역임, 독일 뮌스터대학 유학중)

'대화하는 언론'의 독자로 남을 터

동대신문이 말을 듣지 않게 반세기, 내가 그와 인연을 맺은 것도 꼬박 10년이 되었다. 모든 독자들, 그리고 전·현직 기자들이 공감하겠지만 동대신문과 나의 연줄은 바로 '말'이다. 처음 신문사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동기는 말을 유창하게 또는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욕심이었다. 이 욕구는 기대 이상으로 충족되었다. 선배기자들의 끊임없는 지도, 교정, 질책 등은 어렵잖게 글쓰는 법을 터득하게 만들었고 계속되는 취재는 자연스럽게 화술을 늘려 주었다. 하지만 점차 중요한 건 말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신문의 본질은 사실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 곧 바른말을 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동대신문은 그 동안 본연의 길을 충실히 걸어왔음을 틀림없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입바른 말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회생을 당하고, 입바른 말을 하

기 위해 매일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야만 했던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말의 전달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일방적인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명령, 지령, 지침, 훈시 등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말하기 방식이었으며, 일상에서는 좀더 세련되게 계몽, 교화, 교습, 학습 등이 주된 방식이 되어왔다. 신문도 후자의 전형적인 예 중 하나였다. 이 말하기 방식의 일반화와 보편화는 동대신문의 새로운 과제 중 가장 비중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언론,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 대화하는 언론이 동대신문의 새 기치가 된다면, 동대신문과 나의 인연은 이제까지 기자로, 편집장으로, 혹은 간사로 맺고 있던 신문사 내부의 관계를 벗어나 스스럼없이 말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독자로서 계속 될 것이다.

김기영(교육 99졸, 97년 본사 편집장 역임,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냉철한 직관으로 시대의 흐름 앞서가길

다음카페에 가면 동대신문 동인회가 있다. 92학번 병민이형이 방장이고 인환이형이 마담인 그곳에 가면, 90년대 신문사를 책임지고 동약을 품이하던 형들이 어느새 넥타이부대가 되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언뜻이 얼마전 주식이 어찌때 해서 그렇게 나이를 먹고 여느 월급쟁이가 되어감을 짐작해 보곤 한다. 지난 11일에는 7년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교내집회에 백명이상 모인걸 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도서관부터 불상을 넘어 본관앞까지 매우고 있는 3천여명의 학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한총련의 지령을 받고 저들을 배후조종하는 자가 누구냐고 교수님은 예전 묻지만, 딱히 할말이 없었던 나는 예전 동대신문 편집장으로서 냉철한 직관과 해안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앞서가기를 그저 기대할 눈을 돌린다.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학교도 놀랄만큼 변했다. 그런데, 신문사는 참 여전하다. 원고 마감 하루전날 청탁하는 뽕새하며 그런 청탁을 받고서도 마감을 훌쩍 넘겨버리는 필자들, 어리버리한 수습과 세상모든 고민을 도맡아하는 데스크,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여전히 오자투성이의 동대신문. 그렇게 오십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모든 변화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문사를 보며 안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학생회관 지하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고맙다. 나는 변해야 할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분법으로 가릴 수도 없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냉철한 직관과 해안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앞서가기를 그저 기대할 뿐이다.



▲ 제765호(80년 5월 13일) 검열과 삭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절, 기사가 적혀 있어야 하는 지면이 허얇게 비어있다.



▲ 제843호(82년 12월 7일) 창간 32년만에 8면 체제로 증면을 단행한다.



▲ 제1000호(88년 9월 13일) 창간 38년만에 지령 1000호를 맞이한다.



▲ 제1012호(89년 3월 1일) 창간 이래 견지해온 세로쓰기를 버리고,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 제1229호(97년 9월 1일) 재편집과정에서 문화면에 '테마' 제를 도입, 대학신문 문화면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 제1265호(99년 3월 1일) 한글로 제호를 변경, 심도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주제기획면을 신설하고 첫면과 끝면을 갈라 인쇄하며 12면·8면을 교차로 발행한다.

모집단위 광역화 —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학회·소모임으로 교육권리 찾아요”

‘공통체 문화’ 살리는 문화적 실천 활동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대안으로 학회중심의 대응전략이 제기됐다.

지난해 본교 사회학과 소속학회인 새로운 사회 연구회(회장=이현우)가 내놓은 ‘대학 구조조정과 학회의 대응 전략’에서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대안으로 학회 중심체를 제안했다.



그동안 학부제 시행의 결과를 보면 소속의 유동성과 신분의 불안정 때문에 학생들간의 인간적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학과체계에 기반했던 학회회의 약화가 결국 대학사회 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은 동아리로 발길을 돌려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지만 다수를 수용하기엔 규모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속 공동체인 학과나 학부에서 그 특성을 살린 전공학회나 소모임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한때 학회가 대학사회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는 진보적 학습, 즉 세미나가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

되는 조직이라는 것과 소수문화적 실천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대학문화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있어 과거 고유한 대학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방법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문화적 실천은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 연구회 허민호(사회과학계열 98)군은 “학회는 선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작은 문화적인 실천을 하는 모임이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학회회의 공극적인 대안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고 전했다. 모집단위광역화에 따라 비인기 과목들이 폐강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 학생들이 관심주제를 공유하고 학회를 이룬다면 강의에 능동적 참여도 가능하고 개인의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

대학에서조차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통체 생활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윤미 기자 junigija@hanmail.net

“인터넷 통해 학생들과 호흡한다”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 ... 본교총학 임시흠페이지운영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학생회는 존재할 수 없다?

모집단위 광역화 이후 약해져 가는 학회회를 학생이 주인되는 학생회로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몇몇 간부들에 의해 운영됐던 학생회가 다양하게 흠어져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학생회도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를 느끼는지 닫혀진 학생회실이 아니라 사방이 트여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n세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만큼 무한하고 유용한 공간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낙선·낙천 운동도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러한 방법은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많은 네티즌들이 자기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 공표하며,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안에서 한 문제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도 학생들이 n세대이며 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게시판을 통해 반영하고 함께 생각할 때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결집력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현재 본교 총학생회에서는 임시 홈페이지(http://cafe.daum.net/DONGGUK/)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과대학 학생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학생들과 나란히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성급하게 도입된 학부제, “대학을 쪼먹는다”

기초학문 소외와 파편화된 학생들 초래 ... 해결방안시급

96학년도에 학부제를 도입한 후 98학년도부터 전국대학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돼 온 모집단위 광역화는 앞으로 모집단위의 개수를 줄이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모집단위 광역화 방침을 재정부원을 전제한 대학개혁평가 기

해당 학부에서 다양한 학과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2학기 때 혹은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야 비로소 해당 전공의 주요 기초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학부 생활에서 전공을 교양처럼 배운 학생들은 해당 전공 지식이 부족하고 3학년이 되면 전공의 핵심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학부제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학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학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제의 문제점은 교육부의 모집단위 광역화가 얼마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입학해서 2년간은 교양위주의 과목을, 나머지 2년간은 기초전공과목을 배우고, 전공심화과정은 대학원에서 배우는 형태의 학부제는 대학원 중심대학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학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갈 것인지 2+4체제인 전문대학원 형태로 갈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결정한 상태에서 학부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얕팍한 지식인 생산한 학부제

이러한 학부제의 문제점때문에 나타나는 전공교육의 부실화·교양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보장’이라는 장점을 가진 학부제는 학과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못지 않게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영어와 컴퓨터로 대표되는 산업응용학문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에 기초가 되는 역사, 철학, 사회 등 기초학문의 소외 현상은 국가적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한 교육부에서는 장학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지만 취직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할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또한 복수전공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인기학과 편중 현상에 따른 기초학문의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전공 최소 이수학점 36학점은 전문대학보다도 적은 점수다. 이는 날



사진:김지영 기자

준으로 삼아 모든 대학을 학부제의 길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제 실시 이후 속속들이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대학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학문적 특성을 감안한 학문계열적 통합보다 기존의 학과나 단과대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현 학부 체계는 ‘인접 또는 유사 학문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한 뒤 다양한 전공기초 강의를 실시해 진로의 폭을 넓힌다’는 학부제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에서 학생들이 1,2학년 때 들어야 할 다양한 통합형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커리큘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내버려진 채 2년을 보내고

대학에 와서 2년 동안 뭘 배우나

본교는 법과대, 의대, 한의대, 사범대를 제외한 전 대학이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교가 실시하고 있는 2+2 형태의 학부제는 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이 2년 동안

과·반 학생회 복원...“첫 단추를 꿰자”

연세대, ‘과발특위’ 운영으로 모집단위 광역화 공략

“교육 제도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과 ‘대학 생활’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광역화’는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연세대학교의 ‘과·반 학생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발특위) 정욱 위원장은 지적한다.

선진국의 교육 제도라고 무턱대고 수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현재 시행하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특히,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생회의 분열을 야기, 학생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과발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과발특위’는 일종의 학생자치기구로서 각 단과의 과·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반학생회!자/신/있/다’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학내의 과·반



사진:김지영 기자

에서 하는 행사나 관련 소식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주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게다가 각 과·반의 일정에 같이 참여하기도 한다.

“해결방안은 학생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를 요구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모집단위 광역

로 첨단화, 전문화, 세분화 돼 가는 산업 사회 흐름에 걸 맞는 질 높은 인력을 키울 수 없으며, 오히려 깊이 없는 얇은 수준의 상식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학부에서 배우지 못한 전공을 심층적으로 배워보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학력주의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상층으로 가기 위해 또 한 층 뛰어넘어야 할 계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공동체가 붕괴된다

학부제때문에 학생인원이 과다하고 학생지도 단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서 효율적인 학생지도 관리가 힘들다. 또한 학생들 역시 동거나 선후배간에 정을 쌓기가 쉽지 않다. 서로 서로 서먹하게 지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선배는 물론 동기생들마저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고 지성인들의 모임이라는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문탐구와 진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학생들 역시 교수를 존경하는 풍토가 성립되어야 한다. 교수의 학생지도 및 교과과정과 전공에 대한 안배가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지도와 자문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현 제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입생들이 동아리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학부제에서는 소속감을 부여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학생회 붕괴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회 강화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회 운영 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모집단위 광역화로 개인화 되고 파편화 되는 학생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학부제 시행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사라져 가는 대학 공동체 문화·토론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지영 기자 ring@dgu.ac.kr

회때문에 학생 생활공동체가 약해졌다. 이 시점에서 과발특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여럿 모여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 과발특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위원장은 전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의장 이희철 조선대총학생회장)은 2000년 전국 각 대학에 ‘과발특위’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과발특위’의 활발한 활동으로 과·반 학생회가 복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모집단위 광역화로 보는 교과과정 전망

“공부 안하는 대학생, 이젠 도태 당한다”

다양한 개선안 구상중 ... 올바른 광역화 위해 평가작업 우선돼야

본교 모집단위가 점차 광역화됨에 따라 교과과정 또한 매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기회 확대방안 필요

신입생모집이 올해부터 학부제에서 단과대학 모집으로 개편됨에 따라 모집단위가 점차 광역화 될 것으로 예상돼 교과과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본래 광역화는 선택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 외에도 기존 단과대 틀안의 강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모집단위 광역화의 목표중 하나인 다전공 활성화 위한 복수전공제도는 현재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광역화를 통한 학문간의 경쟁과 전공선택을 위한 학생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본래 취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낙연(경제학) 교수는 “연계전공제나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광역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하는 전공에 배정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학부제에서 성적순에 의한 인원제한의 폐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전공강화 · 연계전공 활성화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표준교과과

정에서 전공을 강화하고 △기초교양필수 과목의 지정 △유사과목간의 교과과정 통합 △사회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학이 학문중심 또는 산업 지향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연계 전공의 활성화 등이 있다.

학년별 수강과목 구분

또한 성적받기가 수월하게 여겨지는 일부 교양과목에 3·4학년 학생들이 풀리는 등 전공과목의 부실화와 기초학문의 기회는 광역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고자 현재 단과대학로 마련된 대학지정 공통과목과 기초과학 및 수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 외에도 2학년까지만 기초학문을 비롯한 교양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3·4학년때부터는 전공과목만 들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수요따른 개편

이와 더불어 교육의 수요자를 학생뿐만이 아닌 사회로 확대해 사회적 수요에 맞게 학문의 모델을 만들어 이에 따른 내용으로 개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공과대의 경우, 취업중심 학문으로 설정해 현장중심의 실습위주 수업을 확대 실시하고, 불교대는 학문중심 대학으로 설정해 연구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로써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전공도 이러한 취지로 시행되며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에서 현

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영상·정보통신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학교가 각 단과대학의 성격들을 종합해 이에 관한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교의 커리큘럼 구상 계획은 이미 4년전 학부제를 시작하면서 교과과정에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커리큘럼 개선 계획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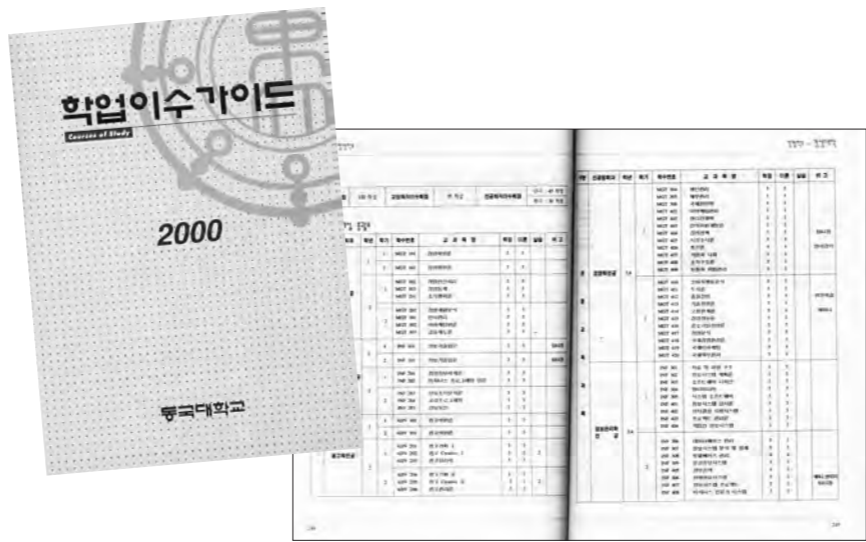
인기학과 편중 심화 우려

한편 모집단위 광역화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기학과로의 학생 편중 현상이 전과제도 완화 등으로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실 박군서 과장은 “편중화 방지를 위해 교원확충과 시설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기학과의 인원제한을 다른

학과보다 더욱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라며 “그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정원수의 변동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일정 수준의 학문 통폐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집단위 광역화가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 현재 학부제에 대한 평가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전제로 공부하는 습관과 좋은 학점만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공부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군서 과장은 “광역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모집단위 광역화에 관한 인터뷰 - 이승복 총학생회장을 만나

공동체 문화 파괴 시급히 시정되어야



이승복(반도체학과 4)

-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이미 실패로 끝난 학부제를 확대하고 강화시킨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은 개선 차원이 아니라 폐지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에 따른 본교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 본교 역시 문제점이 많다. 유사하지 않은 학문의 통폐합이라든가 대안 없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전공선택권의 보장이나 교원확충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대학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공동체적 문화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것들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 1학기에 있을 정기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토론한 후, 2학기에는 전면적인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학년들의 전공 선택시기가 내년 1학기인 만큼, 그 시기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반 전공 학생회 체계를 튼튼히 조직하고 그 안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학과 단위 중심의 생활 문화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공동체적인 대학문화 건설에 힘쓸 것이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모집단위 광역화 —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새내기 - 문과대 1학년 신성규

선배 없어 우왕좌왕

모집단위 광역화란 글자 그대로 전공학과 단위로 모집단위를 넓혀 학부나 단과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관리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먼저 유대감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새내기라면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배가 없기 때문이다. 선배들은 나름대로 이미 전공학과 내에서 그들만의 유대의식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전공학과를 선택할지도 모르는 새내기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고 덩달아 새내기들은 자연히 선배들과 멀어지

며 선후배간의 유대감도 약해지게 된다.

둘째로는 끊임없는 경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입시합에서 80만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다. 내가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친구에게 저아하는 경쟁은 지난 12년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원하는 전공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학점따기 경쟁을 피할수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나 공부하는 대학생을 만든다는 학교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가뜰이나 점이 메달라 가는 세상에서 한방울의 물이 되어야 할 대학이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학부제 입학생 - 생자대 식물자원학전공 3학년 고동희

전공선택 후 선배와의 관계 난감

대학에 오기 전, 가장 배우고 싶었던 학문은 지구과학과 지질을 탐구하는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수능시험을 보고서는 산림과 식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생명자원과학부에 입학했다.

학부 선배들은 친절하고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얽한 모습도 보여주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기들과 학부 선배들하고만 친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전공을 결정할 후에 전공학과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잘 적응도 되지 않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결국엔 ‘학과 선배들 역시 내가 2년

의 학부생활을 하고 전공을 결정하면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고는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 지 모르는 난처함에 빠졌다. 바로 이 점이 학부생으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혼란과 안타까움이란 생각이 든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때문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 외국의 교육 정책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학문을 깊게 파고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강조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학과단위 입학생 - 사과대 경찰행정학과 4학년 고영훈

반쪽짜리 학부제... 학교 · 학부 애착 결여

동약의 매학기 시작은 여기저기 나붙은 대자보들로 시작된다. 서로 술먹다 옆 테이블 학생과 시비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은 같은 과 선후배지간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과의 경우 학과제라서 그런지 이러한 풍경은 잘 이해가 안된다. 사실 모집단위 광역화의 취지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는 거의 보편화된 교육 제도라 할 수 있다. 핵심은 학부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학문을 접해보고 나중에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여 더 깊은 학문

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나름대로의 부분수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일을 했다는 어떤 공적의식의 발로였던 것일까?

지금 보면 왠지 어설플 반쪽짜리 학부제 같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누가 후배고 선배인지도 모르며 학교에 대한 애착도 학부에 대한 애착도 없는 상태에서 학과 전공 결정 때 인기있는 과에 가기 위한 학부 동기들과의 경쟁으로 정작 더욱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진 않나 생각해 본다.

고수가 권한다



전봉진 교수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어린왕자



“어쩌면 사제간의 모습도 어린왕자와 여우처럼 서로 길들이는 관계로 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들이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커다란 굴레 속에서 서로를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왕자는 어린이를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시금 읽게 되는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을 통해서만 보여진다”는 여우의 말이 책을 덮는 그 순간까지 가슴깊이 다가온다.

생텍쥐베리의 탄생 백주년을 맞은 올해 지구에 찾아온 어린왕자를 만나보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신아사, 정가 6천원

오두막 편지



“우리가 자연을 저버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작아졌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

서놓았던 법정스님의 또다른 산문집. 송광사 불일암에 암자를 지어 20년을 산 뒤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는 그의 삶의 기록과 순수한 정신을 담은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로 일깨우고 있다.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에 나도 우주의 호흡이 내 자신의 숨결과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이 책을 접하는 이들에게 또다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선사할 것이다.

이레, 정가 7천원

내 어머니의 모든것



“어두움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건져 올리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뵈었다”
‘52회 칸느영화제’ 최우수 감독상과 ‘99년 영국 독립영화제’ 최우수 외국영화상, 같은해 ‘유러피안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등을 받으며 장안의 화제가 됐던 이 영화는 스페인 출신 알모도바르 감독의 작품.

마뉴엘라는 믿고 의지하던 남편 에스테반의 몸에 여자의 가슴이 달려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 심한 갈등을 빚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뒤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옛 남편을 찾아 떠나는 즐거이다.

TIME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영화중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깊숙하고 아름다운 명상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이레, 정가 7천원

동약론

교육재정정책



“너희들이 이라고도 대학생이나? 이렇게 한다고 등록금이 동결돼?”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줄은 아냐? 선·악도 구분 못해!”
사람대에 대한 저조한 국고 지원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학교 당국과 등록금 책정과 교육 재정 확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 중 과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일까?
지난 11일 오후 3시 학생총회를 마친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분관 점거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 심한 욕설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여전히 등록금 동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날 ‘교육재정 6%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정부는 이를 지키지 못해 궁극적으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인상하게 만들었다.
전국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13일 총선 때 각 당에서 내세운 대학 교육 정책대

부분은 대학 교육 재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추상적인 구호만 내세울 뿐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학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학교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할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공약들이 각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명해 우리는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교당국과 연례행사처럼 아무 소득없는 치열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소모전을 치러서는 안될 것이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기념일과 개성시대

우리는 일생을 통해 많은 기념일을 갖는다. 그중 가장 흔한것이 생일이고 그밖에는 결혼 기념일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기념일을 가지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일종의 자기 광고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생일 기념일은 자기를 남들에게 광고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자기 생일을 핑계삼아 자기 광고를 하게 된다. 기업에서 생활 해본 사람은 대중 느끼겠지만, 자기 생일을 유난히 챙기는 사람은 직장에서 별볼일 없거나 자기 P.R.에 유독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기념일을 챙기는 행위가 꼭 나쁘다는것은 아니다. 현대는 자기 P.R.시대고, 그러한 행위는 사회 생활 하는데 어정도 필요하다.
결혼 기념일의 예를 들어보자. 결혼기념을 챙기는 것은 부부간의 정을 회복해주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생활의 즐거운 측면을 기억나게 한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다른측면에서 해석해 보자. 일반인들이 생일기념일을 주로 기억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어떤 종교에서는 생일을 기념하지 말고 죽은날을 기념해야한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필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념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기념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화이트데이 등이 과연 좋은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화이트데이 등은 외국에서 시행되던 것이 어떤 상업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경위에 의해 도입되었던 간에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념할 가치가 있다면 행하는 것이고 기념할 가치가 없다면 행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최근 각종 기념일이 남발되어 사회적 비

판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기념일의 도입이 돈을 벌려는 상업업자의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개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년 365일 내내 기념일을 한들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대는 개성의 시대이다. 그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개인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념일 추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하헌국 교수
관광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동대신문 대학신문의 역할과

1235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나라 일본

동대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대학신문 문화면의 위치와 역할을 점검해 보고 동대신문 문화면의 역사를 돌아본다.
편집자주

일제식민통치가 종료된 후 우리는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일본대중문화개방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지난 1235호 신문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주제로 이 현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드래곤볼, X-JAPAN 등 친숙한 대중매체들이 있는 반면 독도영유권 등을 주장할 때는 웬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이런 시각보다는 일본문화를 이용해 한발 앞서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저질적인 문화로 인한 악영향때문에 개방을 거부하는 입장과 유독 일본문화 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찬성의 입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역사적 감정보다는 우리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한 단계로 보자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제1차 일본문화개방은 98년 10월 이뤄졌으며 개방 초 우려하는 달리 그리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개방범위 확대와 일본 대중가

요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2차 일본문화개방이 99년 9월에 이뤄졌다.
덕분에 방송,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사실상 개방된 셈이다. 개방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3차 개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제껏 지켜온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적인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45호 외국 문화원에서 세계 일주를...

문화원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연인들의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만 해도 외국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의 이국적인 분위기는 대학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으로 작용했다.
1968년 개관한 독일문화원은 남산 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학강좌를 듣거나 유학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학강좌는 1년을 4학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추천과 시험을 통해 초급과 중급으로 가른다. 6개 문화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영국문화원은 one-stop-shopping 개념으로 자료검색이나 문화관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인터넷이나 비디오, 오디오 등의 자료이용을 위해서 회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년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된다.
1972년 설립된 일본 공보 문화원은 약 2만 2천권의 장서와 각종 정기 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일반강좌와 일본어 교육연구 강좌로 나누어 2학기에 걸쳐서 일본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시관이 바로 연결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인 프랑스문화원에서는 상소과 드라마, 불어회화 등의 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다. 어느샌가 외국문화원은 우리문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외국문화원은 타국에서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1246호 대학문화의 희망을 찾아라!

대학문화에도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 대답은 ‘잘 모르겠다’이다. 사실 사회 변동을 통해 새로운 이념이 과거의 이념을 대체하지 않으면 문화의 본질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문화를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 하듯이 문화 그 자체는 이념과 사회가 반영된 현상이다.
하지만 대학이 생산성을 상실하면서부터 대학문화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문화면 9월 6일자부터 3주간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화두가 문화면을 가득 메웠다. 90년대의 대학문화가 과연 대중문화와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7·80년대의 대학이 문화모습을 두루 비춰왔던 이 기획기사는 90년대 대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소위 ‘뒷풀이 문화’, ‘술문화’로 탈바꿈 된 현실을 보여 주었다.
70년대 대학문화가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통기타, 장발 등으로 ‘청년 문화’를 대변했다면, 80년대의 문화는이념과 정치적 투쟁의 ‘시위문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때의 대학문화운동은 상업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대중문화라고 무조건 거부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천들을 어떻게 대학문화인의 흐름으로 끌어들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어설피지만 전위적인 문화적 실천이아발로 대학문화가 담당해야 할 임무로 결론 내려졌다.
그리고 대학문화의 대안찾기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의 장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98년 4월 13일자에 소개된 낙서판을 통한 자발적 의견제시는 다시금 ‘낙서문화’의 부활을 꿈꾸게 했으며, 지난해 5월 24일자 문화면에서 지켜본 학내 문예패들의 공연문화는 학생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신문의 문화면

대학신문, 사회를 향한 사자후

과거 7, 80년대 대학신문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치열한 비판정신으로 모아졌다. 운동 부조리와 억압으로 물러싸인 시대상황 속에서 어디에선가는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목소리를 내야만 했다. 과거에 그 목소리는 바로 대학신문이었다.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대학신문은 대학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고 사회를 향한 사자후였다. 대학문화에 대한 절절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던 70년대, 군사정권의 3S정책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던 80년대, 대학신문 문화면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신랄한 비평의 지면이었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사회에 물들지 않은채 건전하고 순수한 대학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문화면의 위기

그러나 90년대 대학신문의 문화면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역할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군사정권의 몰락과 문민정부 수립, 문화개방등 일련의 변화들은 다양한 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기존의 언론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통로를 통해 비평문화를 정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존의 아마추어리즘은 설 곳이 없게 돼버렸다. 다양하고 폭발적인 문화적 욕구들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비평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90년대와 21세기 초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학문화는 오랜 정체기와 과도기를 겪고 있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대적 요구가 맞물렸던 시기가 지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사회를 맞고 있다. 대학문화의 흐름이 변하듯 대학신문의 문화면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대학인들의 문화행태를 읽어내고 담아내는 일, 더불어 과거와 다른 참신한 비평을 기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면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동대신문 문화면

현재 동대신문의 문화면은 주로 대학 내외의 문화소식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이슈들을 한데 묶어 전달하고 있다. 97학년 2학기부터 시도된 변화의 결과로, 한가지 문화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문제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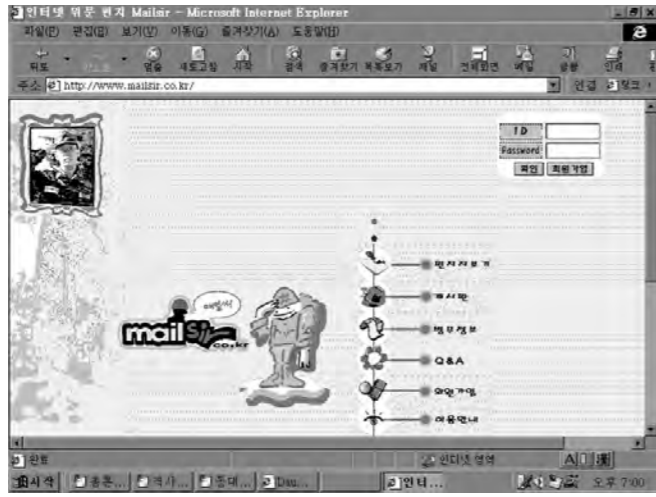
동대신문 문화면의 역사는 카(E.H.Cam)의 말처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대화’속에서 만들어져왔다. 앞으로도 문화면은 과거 대학신문이 가졌던 순수함과 시대정신과의 대화, 또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의 대화속에서 토인비가 명명했던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문화부

매체비평

- 인터넷 사이트 편

'www.mailsir.co.kr'

"인터넷과 휴머니즘"



군대로 대신 편지를 보내주는 'www.mailsir.co.kr'

요즘은 손가락 하나로도 세상을 열 수 있다. 대학가의 레코드점마다 '인디'라는 별도의 코너가 자리하고 있을만큼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다. 21세기 문화의 화두가 '다양성'으로 떠오르면서 잡지에도 다양성의 열풍이 불었다. 기존의 잡지와는 차별되는 색깔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독립잡지도 그중 한자리를 차지한다. 독립잡지는 여러 가지 주제의

한 세상(?)은 다 열린다.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으면 생필품이나 공연티켓, 제법 값나가는 물건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
어떻게 하면 좀더 기발할 수 있...
지하철이나 버스안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인터넷 사이트들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내용을 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속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눈치챌 수 있다. 그 옛날 중국의 손자에 따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이긴다'고 했다. 정보의 바다를 좀 더 날렵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들의 전술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우선 오랜 관찰과 막대한 투자로 알아낸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우후죽순' 법이다.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마치 머털도사 도술부리듯 마구잡이로 생겨나면서 서로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허~참' 관법인데 별것도 아닌, 그렇지만 귀찮기 그지없는 것들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대신 처리해주는 기술이다.(그밖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기술 두가지만 꼽기로 하자)
어느날 날아온 노란봉투! 송신단에 쓰

인 '군인친구들'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다. 매일씨(www.mailsir.co.kr)라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다. 매일씨? 뭘 씨? 군복무중인 대한민국의 건아들에게 대신 편지를 보내주는 인터넷 사이트였다. 허~참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군대간 친구에게 지금껏 편지를 몇통이나 보냈더라? 이걸 이용하면 한꺼번에 여러명에게 생색낼 수 있겠군. 편지지도 색색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가입방법도 간단하고 오후라 가격까지 저렴하군.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를 써도 되는 건가... 간단하고 편리한 것 까진 좋았는데 뭔가 허전하고 꺼림칙하다.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식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편지지를 고풍배부터 봉투에 넣어 붙일때까지 손도 많이 가고 공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귀찮다

고 느낄 수도 있다. e-mail과 '매일씨' 류의 인터넷 사이트 등장은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된 과정만큼이나 정성과 마음도 반감된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정보화 과정과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농업, 산업사회가 수백년에 걸쳐 변화 해 온 것처럼 정보사회도 시간을 두고 추이를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수많은 야류 사이트들과 과정의 생략을 강조한 사이트들은 다시 한번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를 일게 한다.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고수가 등장하면 평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점차 휴머니즘을 잃어가는 '오로지 간단하고 편리하게 최고야' 사이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화부

문화면, 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라!

위상정립필요... 참신한 사고·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길러야

1247호 인디즈,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독립'이란 남의 힘을 입지 않고 홀로 선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음반과 독립잡지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하길 바라는 것일까.
인디 레이블(Indie Label)이라 부르는 독립 음반사의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띄면서 몇몇 클럽에서 독립음반을 내기 시작했고 그 작은 움직임이 현재까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독립 음반은 공중과 방송과 메이저 음반사, 거대 도매상의 막이슬로 들어가는 국내 가요산업에 반기를 들고 나타났다. 이런 독립음반은 98년 천지인, 삼청교육대 등의 인디 밴드들을 만들어내며 활기를 띄게 되었고 현재는 전국의 대형 레코드 점과 대학가의 레코드점마다 '인디'라는 별도의 코너가 자리하고 있을만큼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다.
21세기 문화의 화두가 '다양성'으로 떠오르면서 잡지에도 다양성의 열풍이 불었다. 기존의 잡지와는 차별되는 색깔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독립잡지도 그중 한자리를 차지한다. 독립잡지는 여러 가지 주제의



식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한가지 주제를 집요할 정도로 파고 든다. 또 그들의 언어는 너무나도 실용적으로 솔직해서 욕이나 음담패설도 거리낌없이 뱉어낸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자기들이 표방하는 색깔과 목소리가 좋으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해도 좋다고 당당히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뒤고 싶어한다. 제로부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서점이 아닌 버스에서 승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결코 진지함을 놓치지 않는다.
음반, 잡지를 비롯한 '인디즈'는 큰 자본과 인원이 있으면 '잘 팔린다' 음악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잡지를 만들려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렇게 '경제논리'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처음 독립을 이야기할 때처럼 서서히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1267호 한국영화의 중심에 선 동국인

한국영화가 질주를 시작했다. 지난해 '쉬리'가 타이타닉의 기록을 깨고 흥행신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그 영향은 바다 건너 일본영화를 강타하기에 이르렀다.
'쉬리'의 흥행성공은 그야말로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쉬리의 열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세기말과 함께 등장한 '거짓말'은 충무로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버람 끝에 선 한국영화가 이제서야 고개를 들었고, '박학사탕'의 성공 때문에 진가를 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영화의 중심에 동국인이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연출·제작·시나리오 집필 등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동국인을 찾아 지난해 3월 15일자 문화면은 '영화관을 지키는 동국인'을 기획했고, 한국영화계의 거장인 원로 유현목 감독을 만났다. 한국영화와 문화전반에 걸쳐 그가 동국과 영화계를 이어주는 튼튼한 사다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

었다. 그리고 충무로를 휘어잡고 있는 '흥행보증수표' 한석규와 박신양, 최민식 등은 영화계에 동국이라는 이름을 새겨놓은 주역으로서 동국의 명예를 빛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동국인이 없는 한국영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영화의 발전이 곧 동국의 발전이 곧 동국의 발전이라는 달콤한 기대감을 맛보게 한다.



자양소식

학교 안에서

끼정터

서울캠 여학생실에서 '민족전통무예 한마당'을 연다. 정문산(기계공학)군의 현악 편을 시작으로 기창, 율도, 본국검 등 다양한 무예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지역 경당 수석 사범인 김대양씨가 진검배기 시연을 보인다.
오는 19일(수) 낮 12시부터. 계산관 앞마당에서. 문의 2260-3056(여학생실)

동국인 백일장

경주캠에서 '새내기 맞이 전 동국인 백일장'을 개최한다. 20명 이상의 문인들을 배출한 국어국문학과와 동국문화회가 함께 이끄는 이번 오 랜 세월 동국문화의 맥을 잇고 신입생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해온 행사라고, 자신의 글 솜씨를 한 장의 종이 위에 맘껏 옮기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오는 18일(화) 11시 북아원에서.

학교 밖에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예전 동양극장의 공연을 원관 그대로 현대에 다시 재현한다. 원로배우 고철봉 선생의 미수를 기려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원제의 일선규 작가 작품을 무대에 다시 올린다. '홍도야 우지마라' 등의 신파극으로 여러 극단에서 변질시킨 작품을 정통극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 '우리회곡 다시보기'라는 명제로 창작극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지난 1일부터 5월 9일까지. 화수목 7시, 금토일·공휴일 4시, 7시(월요일). 명동창고극장에서. 문의 319-8021

1269호 N세대를 아십니까?

N세대는 Net-generation이라 불리며 영상정보매체를 통해 자아를 성장시킨다. 이들은 TV보다는 컴퓨터를 선호하고 편지대신 E-Mail을 주고 받는다. 책, 라디오, 신문 등의 아날로그 매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한 다감각매체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N세대에게는 혼자라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
존 페리 발로우가 96년 2월에 발표한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 따르면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누구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혼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단지 문화를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

으로 N세대를 평가할 순 없다. 이들은 만들어진 문화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심야영화 관람, 동대문상가의 심야쇼핑 등을 통해 그들 나름의 밤문화를 양산해 냈으며, 거기에 발맞춰 게임방, 만화방 등의 각종 밤문화까지 항유하고 있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 서핑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출출하면 편의점에 가서 배를 채우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DDR(Dance Dance Revolution)이라는 오락기계를 통해 그들의 독특한 춤문화를 만들어 냈다. DDR 열풍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십여개의 동호회가 생겨날 정도이며 DDR경연대회까지 열리게 했다. 이제 DDR은 N세대 문화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N세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휴대전화이다. 98년을 시작으로 불을 일으킨 휴대전화는 어느새 이들에게 필수품이 되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세지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장소를 불문하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휴대전화 예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72호 신지식인 열풍이 분다

정부가 제2건국 운동의 하나로 추진중인 '신지식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이 운동은 학벌위주의 틀을 깨고 창의성을 발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신지식인'이라는 명예를 주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취지로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다. IMF체제 하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행한 것을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것은 지식으로 치부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식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몰아낸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주장하는 이 운동은 배타성 때문에 인본주의적 지식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극히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끌고 갈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신지식인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서 지식의 가리키는 신지식인과 보편적 지식 사이의 확실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확산시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행단계에서도 몇몇 신문사에서 주도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지나치게 경제성만을 강조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신지식인 운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관념적으로 느끼던 지식을 뛰어넘어 실용지식을 강조한다는 점과 창조적 지식이란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신지식인의 개념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학문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잘 활용, 가점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신지식인들의 에너지를 국민적으로 더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문화면 '텔미씽'

△ Something~(난 나에게 Something을 얘기했다. 갑자기 Something Special이 마시고 싶다.
△ 대학문화틀리도...뭘지?
△ 뭘가(뭘가를 말하러~) 그래서 했다. 깨이~
△ 이 시대 최고의 비디오 대어 인기순위 best top "텔 밀 씽씽"

△ 타 신문이나 기타의 여론지에서 시도한 바 있는 문화 issue는 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
△ fusion이라는 주제는 다른 잡지나 신문에서 지난해(1999년)에 이미 issue화 시켰던 내용입니다.
△ 참신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갈 꿀기식은 이제 그만~
△ 문화면도 칼라틱하게 만들 수 없나오.

△ 좀더 재미난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편집을 그려주세요.
△ 다양한 정보소개도 만나마니...
△ 문화면 영화 재미나게 읽고 있어요. 앞으로 더 육터 열심히...
△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해 주세요(서울, 경주)
△ 연예계 소식도 알 수 없나오?
△ 기자와 학우와의 만남의 시간은 없나오?(배낭 여행)

△ 언제나 최고의 면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 문화면 짱!!
△ 텔미 씽씽의 심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건지 한석규에 대해서 말하라는 건지.. 아니면 영정화물?
△ 텔미 씽씽이 맞는 거예요, 텔미 씽씽이 맞는 거예요?

메아리 피노키오

▲어릴적 동화책에서 보았던 피노키오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나무로 깎고 줄을 달아 인형극을 할 때 쓰이는 인형이 바로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그저 평범한 인형은 아니다. 인형주제에 맞도록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말성도 부린다. 피노키오를 떠올릴 때마다 곧장 머리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던 모습이다. 어린 마음에 거짓말할까 마음먹었다

가도 자꾸만 코가 신장크였던 기억이 새롭다.
▲철들고 몇 년간 보아온 국회의원들은 피노키오 같다. 국민들과의 약속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공약들로 자기를 묶고 국민들의 바램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금껏 바람직한 국민의 지광이 아니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세세운 공약을 깨달게 잊기 일쑤였고

'읽기 내내 놀자' 아니면 '비리와 부패'만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노키오와 다른 점은 거짓말을 해도 코가 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선이 끝났다. 총선연대의 낙선·낙선운동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옥석이 가려졌다고 한다. 선거운동도 많이 깨끗해 졌다고 한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총선사상 최저라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들이 이제는 점점 길어져서 숨길 수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코를 본 것이다.
▲말썰성이 피노키오는 결국 잘못을 반성하며 꼭두각시 인형에서 귀여운 소년인 된다. 물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마술에서도 풀린다.
낙선·낙선 운동과 깨끗한 선거운동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것들을 내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시작했을 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지킨다면 꼭두각시 국회의원도 피노키오 동화같은 해피엔딩으로 읽기를 마칠 수 있다.
바라건대, 마술이 약효가 떨어져서 4년 뒤 또다시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가 되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최은진 문화부장



동대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내 사회조사학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지주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대신문을 위하여

작년비해 만족도 상승 ... 편집·의견반영·인터넷운영 아직도 부족

동대신문 관심도·만족도

다양한 의견 반영·좀더 시각적 편집 필요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도를 전체 분량, 기사의 분량, 편집과 디자인, 기사의 유용성, 내용의 다양성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27.4%, 보통이다가 50.3%, 불만이다가 22.3%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편집구성을 제외한 조사항목들이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인 것과 비교해 불만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집과 디자인, 내용의 다양성 부문에서 각각 26.7%, 33.6%의 불만을 보이며 동대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뚜렷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작년 조사에서 편집구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반해 올해는 이에 대한 불만사항이 높아 편집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내용면에서도 좀더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읽는 기사는 학내보도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동대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가 정보획득(36.5%)임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문화(16%), 사실·칼럼(7%)등을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 또한 수치는 다르지만 학내보도(34%), 문화(23%) 순으로 주로 읽는 기사와 같은 순서를 보였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본교 학생들이 사실·칼럼(8%)보다 독자참여(17%)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동대신문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학생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불필요하게 지면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정치·사회(39%, 29%), 학술·기획(15%, 21%),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정치·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내용에 대한 지면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로는 문화(30%)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적 욕구와 관심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대신문의 만족도

단위 : %

	만족	보통	불만
전체분량	37.7	48.1	14.4
기사분량	30.9	53.1	16.0
편집, 디자인	23.7	49.6	26.7
기사의 유용성	24.4	54.6	21.1
내용의 다양성	20.2	46.3	33.6
평균	27.4	50.3	22.3

동대신문 홈페이지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 떨어져

문화·공연소식 추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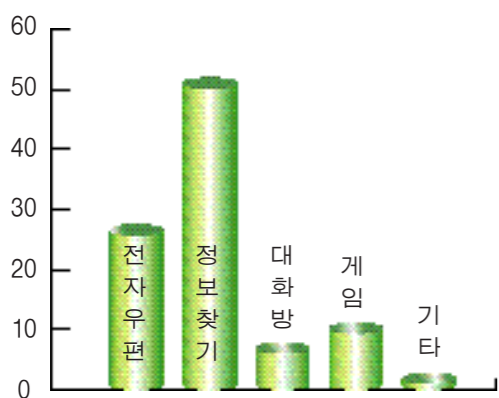
동대신문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선호하는 매체로 TV에 이어 인터넷이 꼽힌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보화 추세와 맞물려 인터넷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는 27.5%에 불과해 홈페이지의 홍보와 운영상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작년에는 41.0%에서 올해는 43.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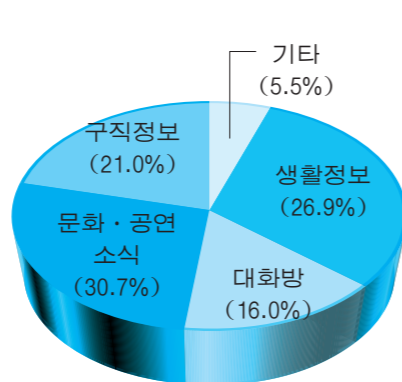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점차 이용확장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으로는 문화·공연 소식(30.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생활정보(26.9%), 구직정보(21.0%), 대화방(16.0%)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전자신문이 강화될 경우에도 종이신문이 계속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8.2%가 그렇다고 응답해 앞으로는 부분간은 종이신문의 역할과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 홈페이지에 새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장소와 시간

장소	퍼센트	시간	퍼센트
집	33.7	1시간미만	35.2
학교	40.6	1~3시간	53.3
계입방	22.5	3~5시간	7.1
기타	3.2	잡으면 날샘	4.4
합계	100.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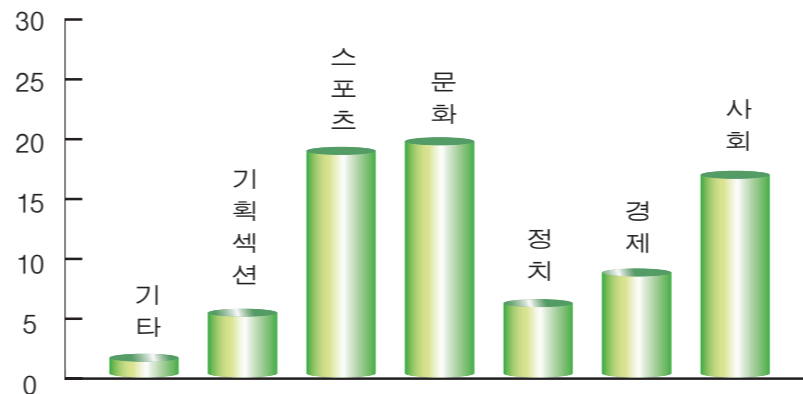
구독신문 선호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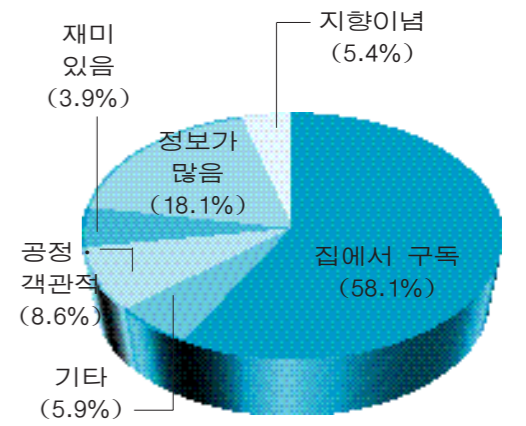
학생들의 주 구독신문은 조선일보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조선일보 다음으로 학생들이 즐겨보는 신문으로는 중앙일보(27.4%), 동아일보(19.6%), 한겨레(11.6%) 등의 순이며 일간지의 주 구독이유는 주로 집에서 구독(58.1%)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18.1%), 공정·객관적이어서(8.6%) 등의 이유로 신문을 구독한다고 답했다.

종합 일간지에서 주로 구독하는 지면은 문화면이 25.1%로 가장 높아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포츠면(24.1%), 사회면(21.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정치면은 8.2%에 불과해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문화, 기획 섹션 등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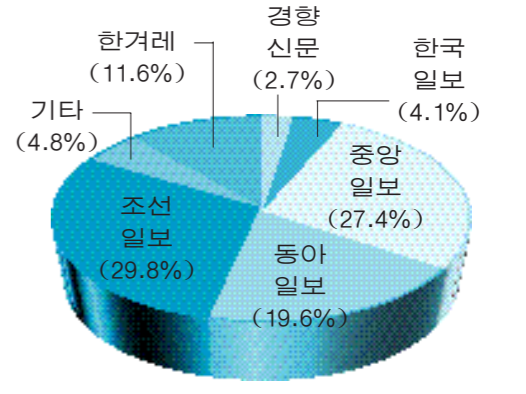
● 이 신문의 지면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지면은 무엇입니까?



● 이 신문을 가장 많이 읽는 이유는?



●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은 무엇입니까?



대중매체와 동대신문 비교

단위 : %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이유	이유 용이	정보획득	정확성	재미	기타
48.1	36.5	26.9	19.5	2.4	14.7
18.3	36.5	26.9	19.5	2.4	14.7
16.4	36.5	26.9	19.5	2.4	14.7
15.7	36.5	26.9	19.5	2.4	14.7
1.5	36.5	26.9	19.5	2.4	1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독자참여 활성화위한 방안 필요

본교 학생들은 동대신문 개선방안으로 학생참여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심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학생참여의 활성화(17회)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알찬 내용의 필요성(14회), 전체 학생의 흥미고려(13회), 지면 증가와 전문성(13회)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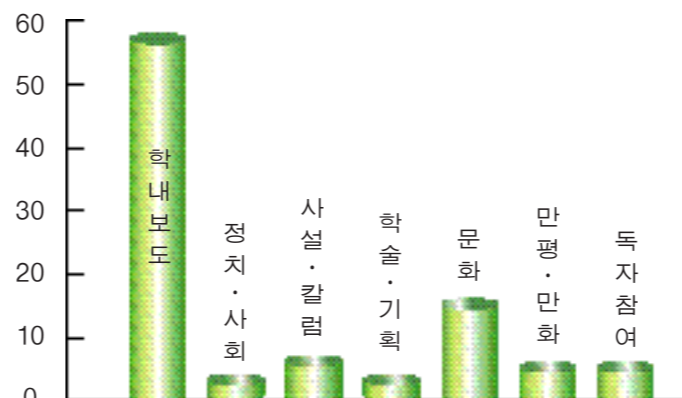
반면 독자투고란에 글을 써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9.8%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몰라서(77회), 관심이 없어서(33회)가 주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독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비단 매주 한면씩 할애되는 여론면이 부족하다거나 투고요령이 알려지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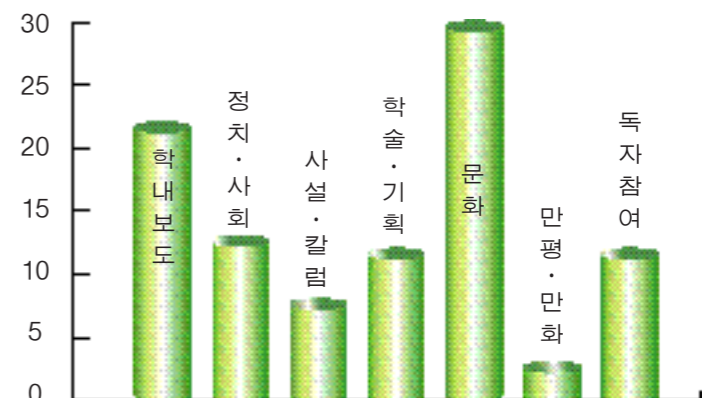
만이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 총선의 저조한 투표율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파편화되고 탈정치화된 신세대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신문은 매주 여론면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나 독자들의 무관심때문에 지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자투고란에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라면 독자참여의 활성화를 질책하기 앞서 독자들의 관심이 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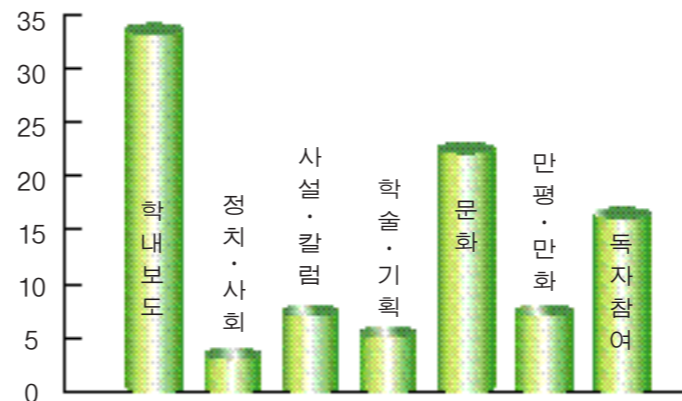
● 주로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